

부록 1)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 20周年 國際學術심포지엄
첫째날 종합토론 녹취록

좌 장 : 李熙濬 (慶北大學校)
발표자 : 金炫希 (國立慶州博物館) 金斗喆 (釜山大學校)
 李清圭 (嶺南大學校) 李容喜 (國立中央博物館)
 辛勇旻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토론자 : 金一圭 (한얼文化遺産研究院) 孫明助 (國立濟州博物館)
 趙鎮先 (全南大學校) 李在賢 (蔚山發展研究院)

李熙濬 : 먼저, 순서에 따라 土器 발표에 대한 토론자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炫希 : 먼저 토론자께서 茶戶里 유적의 위계화된 집단목관묘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密陽 校洞과 비교하여 여쭙 보셨습니다. 위계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권력의 상징물로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세품의 품격에 의해서 규정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原三國 시기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전 시기부터 내려오는 세형동검이라든지 중국 漢과의 교역을 통해 보여주는 銅鏡이라든지 그리고 漆鞘銅劍, 상류층에 제한적으로 사용된 칠기류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密陽 校洞 3호분이나 17호분에서 星雲文鏡과 異體字銘帶鏡이 나왔는데 銅鏡만으로 위세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茶戶里 1호분에서 출토된 다양한 칠기류, 그리고 함께 공반되어 나오는 五銖錢, 漆鞘銅劍의 공반 관계를 살펴보면 密陽 校洞보다는 茶戶里가 한 단계 정도는 위에 있는 품격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같은 시기 金海 가야의 숲과 良洞里, 慶山 新垆里, 大邱 八達洞, 星州 禮山里 등에서 여러 가지 목관묘 유적이 확인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茶戶里가 위계가 높다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茶戶里 1호분 같은 경우는 이 시기 최전성기,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심 세력의 수장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朝陽洞 38호, 舍羅里 130호, 良洞里 162호 등 시기에 따라 유력자 묘의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즉, 한 곳에서 중심세력이 영속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유적이 시기적으

로 나타나고 소멸해가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瓦質土器 같은 경우에는 前期 瓦質土器를 중심으로 했던 목관묘 집단 간의 수평적인 네트워크가 이 지역에 형성되어 있었고 마지막에 언급했듯이 목관묘 단계에서는 다른 지역차를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無文土器와 瓦質土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속성 등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無文土器와 瓦質土器를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土器를 관찰해보면 그 기준에 딱 들어맞게 양분되어지는 것들이 없고 매우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土器를 관찰할 때 옆에 있는 선생님들과 서로 비교 분석하기도 했는데 객관적인 기준을 두더라도 관찰자의 주관적인 안목이 더해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짓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無文土器와 瓦質土器가 어떤 것인지 질문을 하셨는데 瓦質土器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還元焰 燒成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李在賢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타날이 아니라 繩文打捺技法의 등장이 瓦質土器의 전형화된 단계에서 보여주는 주요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朝陽洞 38호 前漢鏡을 傳世 없이 기원전 1세기 중엽으로 편년하고 앞서 朝陽洞 5호라든지, 茶戶里 1號를 동일 시점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 銅鏡을 가지고 그 상한이 燒溝漢墓의 3기 前期로 소급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계를 설정함에 있어 제가 朝陽洞을 기준으로 두고 茶戶里를 여섯 단계로 구분하여 그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하면서 최근 자료를 살펴보니 상한시기를 소급할 수 있는 최근 중국자료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38호의 異體字銘帶鏡인 昭明鏡은 최근 연구 자료에 의하면 주연부 형태가 넓어지고 명문의 書體가 예서체→설형체→고딕체로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중국 江蘇省에 있는 揚州市 邗江胡場 5호 漢墓에서 本始 3년 즉, 기원전 71년에 해당하는 기년명 목관과 함께 星雲文鏡과 異體字銘帶鏡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리고 河北省 40호묘에서 五鳳 2년(기원전 57년)에 해당되는 기년명 목관이 異體字銘帶鏡과 함께 출토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알려져 있는 星雲文鏡과 異體字銘帶鏡의 상한연대가 30년 정도는 올라간다는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지어 이 시기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土器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校洞 3호와 茶戶里 1호가 공유될 수 있는데 茶戶里 1호는 확실히 朝陽洞 38호보다는 빠르고 朝陽洞 5호와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朝陽洞 5호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多紐鏡 분위기를 가진 재래의 거울들을 가지고 있음에 비해 茶戶里 1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前漢鏡을 부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校洞 3호의 거울이 같은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늦은 시기에 무덤에 묻힌 것이므로 이 상황에서는 傳世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기본적으로 前漢鏡의 傳世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土器와의 배열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대입시킬 수는 있지 않을까. 약간의 융통성을 가지고 傳世 기간의 여부에 대해 銅鏡을 연구하고 土器 공반관계를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분기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설정한 2단계가 토론자 선생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분기점을 설정한다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발표에서 설정한 분기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土器의 변화 과정에 있어 茶戶里 49호분에서 보이는 파수부 長頸壺의 두 가지 형식들이 함께 확인되는 것들과 圓底化, 그리고 정형화가 모든 기종에 적용되는 단계를 분기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같은 시기 金海지역이나 密陽 등 다른 목관묘에 비해서 茶戶里 1호분이 특히 위세의 품격이 높기 때문에 가장 중심적인 세력 집단의 유적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확인되는 목관묘 단계의 것이 보이지 않고 그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게 그 주변의 昌原 道溪洞유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昌原 茶戶里유적 주변지역에서 목관묘가 발굴조사 되면 이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뒤엎어지겠지만 현재까지 茶戶里 목관묘 단계 이외의 것이 주변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하고 생각을 했는데 목관묘의 성립배경 자체가 아무래도 철기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辰 弁韓의 경우에도 이런 세력 간의 재편들이 水系를 통해서 계속 이동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철기의 제작과 그것을 둘러싼 집단 간의 승패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승패에 따라서 남동해안 일대에 金海 狗邪國 세력들이 급격히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金海 良洞里에서 보이는 漢代의 동전이라든지 銅鏡 그리고 倭系의 문물들이 그 증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熙濬 : 답변에 대해 다시 확인하시거나 추가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金一圭 : 前漢鏡 자체의 편년에 대해 발표자께서 언급한 중국본토의 기년명이 동반한 漢墓에서 출토된 漢鏡이 기원전 71년, 기원전 57년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異體字銘帶鏡 같은 경우에는 昭明鏡이나 日光鏡이 燒溝 2기부터 출토됩니다. 異體字銘帶鏡은 燒溝 2기~3기에 유행한 것으로 기원전 73년부터 동한시대 초까지 편년되는 漢鏡으로 가장 출토예가 많은 중심연대는 燒溝 3기 前期인 기원전 33년부터 기원 6년까지의 기간에 해당됩니다. 燒溝 2기가 기원전 73년부터 33년까지이므로 위의 연대는 기존의 연대관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異體字銘帶鏡이 燒溝 3기의 前期에 가장 많이 출토되어 그 성행기가 3기 前期에 해당되므로 남부지역 출토 異體字銘帶鏡의 연대를 이와 비교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漢鏡 자체는 五銖錢과 함께 편년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역연대 자체는 燒溝漢墓가 거의 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傳世와 관련하여 龍田里에서도 초엽문경 내지는 日光鏡片으로 보이는 것이 출토되었는데 동반하는 주머니호의 형식으로 볼 때 朝陽洞 38호 단계 내지는 그 언저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土器의 단계 설정과 함께 기존의 洛陽 燒溝漢墓 편년과 관련된 銅鏡의 상대연대를 순서대로 놓으면 傳世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지만 土器의 이른 형식과 漢鏡의 늦은 형식이 동반하고, 늦은 형식의 土器와 이른 형식의 漢鏡이 동반하는 것들을 통해 볼 때 오히려 저는 漢鏡으로 편년하기보다는 보다 新式 遺物인 土器로 편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漢鏡 자체는 土器의 단계에 기준해보면 朝陽洞 38호 단계에서 대부분 다 출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 일시적으로 부장 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재지에 반입된 이후 傳世되었든지 혹은 原鄕에서 傳世된 것이 수입과 동시에 부장됐든지 하는 쪽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李熙濬 : 그럼 제가 여쭙 보겠습니다. 金一圭 선생님은 朝陽洞 38호와 茶戶里 1호, 密陽校洞 3호나 17호를 같은 단계로 보시는 겁니까? 같은 단계라기보다는 연대적으로 예를 들면 기원전 1세기 후엽이라든지 또는 기원후 1세기 초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金一圭 : 예, 저는 비슷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李熙濬 : 土器로 보면 茶戶里 1호하고 朝陽洞 38호가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金一圭 : 일단 土器는 茶戶里 1호에서 無文土器 1점이 나왔는데 얼마 전에 살펴본 결과 校洞 17호분 無文土器 파수옹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같은 단계로 봐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李熙濬 : 李在賢 선생님, 그 연대에 대해서 土器와 관련하여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 생각도 좋고 정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李在賢 : 지금 보고되어 있는 상황으로는 茶戶里 1호 土器가 거의 없기 때문에 土器를 통한 비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星雲文鏡과 異體字銘帶鏡의 기존 편년들은 星雲文鏡이 약간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樂浪 지역에서도 星雲文鏡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異體字銘帶鏡과는 다른 상황에서 수입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茶戶里 1호가 朝陽洞 38호보다는 약간 이른 단계로 기존의 편년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熙濬 : 그러면 혹시 朝陽洞 5호는 어떻습니까? 朝陽洞 5호는 茶戶里 1호 단계와 같은 단계로 보는 분들도 있고 좀더 빠르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土器 변화를 생각해볼 때 朝陽洞 5호와 38호가 바로 이어지는 단계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 한 단계 더 설정할 수 있을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李在賢 : 저는 한 단계 정도 더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朝陽洞 5호와 38호는 土器 상에서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한 단계 정도 더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李熙濬 : 그러면 朝陽洞 5호 단계 다음에 茶戶里 1호 단계 그 다음에 朝陽洞 38호 단계 이런 정도로 일단 단계 구분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와 관련해서 土器에 대해서 더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金一圭 : 樂浪의 경우 대체적으로 異體字銘帶鏡은 高久健二(다카쿠 겐지)선생님의 樂浪 편년 2기에 거의 대체적으로 공반되는데 星雲文鏡 같은 경우는 樂浪 1기에도 나오고 기원후 1세기로 편년하는 3기에도 內行花文鏡과 공반·출토되는 예가 몇몇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星雲文鏡이 나왔다고 해서 빠르다고 단정하거나 제작지의 제작연대와 결부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李熙濬：李在賢 선생님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하실 것이 없으십니까? 문제는 종합적인 유물 갯춤새가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李在賢 선생님께 그런 질문을 여쭙본 이유는 瓦質土器와 無文土器가 구분이 어렵다는 말들이 나오기 때문인데 그럼 朝陽洞 5호에서 나오는 長頸壺는 瓦質土器입니까 無文土器입니까? 어떻습니까?

李在賢：저는 보고자가 보고했듯이 無文土器로 보고 있습니다.

李熙濬：그럼 朝陽洞 5호의 주머니호는 어떻습니까? 소성, 색깔 등으로 봐선 無文土器 재질로 보이는데 金斗喆 선생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金斗喆：사실 우리가 無文土器라고 하면 靺鞨유적의 소위 종말기무문토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無文土器 전통 중에서 黑色磨研長頸壺와 같이 마연기법이 채용된 것은 無文土器 범주에 넣습니다. 還元焰 소성의 瓦質土器와는 달리 茶戶里 15호분에서 출토된 土器는 한쪽에는 흑색마연토기처럼 되어있지만 黑斑이 남아있는 불완전소성품입니다. 胎土質은 무문토기로 보고 싶습니다. 종말기 無文土器의 태토질만을 꼭 무문토기로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李熙濬：李在賢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在賢：주머니호가 회색을 띠다고 해서 전부 瓦質土器로 보기는 어렵다고 예전에 논문으로 썼는데, 회색을 띠는 土器는 黑陶長頸壺에서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瓦質土器의 출현은 組合式牛角形把手附壺나 短頸壺 등 還元焰 소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단계부터 봐야지 주머니호가 회색을 띠다고 해서 그 시기부터 瓦質土器가 출현했다고 보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李熙濬：기종별로 출현과정에 차이가 있는데 특히 주머니호가 일찍부터 瓦質化되어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태토가 상당히 정선되어 있는데 일반 無文土器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李在賢：태토는 고운 편인데 無文土器에서도 고운 태토로 만들어진 기종들이 있기 때문에 태토나 정면수법은 無文土器나 瓦質土器나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炫希 : 朝陽洞 1단계와 2단계를 구분하기에 앞서 朝陽洞 5호와 38호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5호와 38호 사이에 한 단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朝陽洞 5호 주머니호 같은 경우 처음에 봤을 때는 瓦質土器로 보였는데 실제로 보면 정선된 태토라고 하더라도 無文土器와 같이 砂粒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還元焰 소성을 구분의 기준으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朝陽洞 5호 같은 경우에는 瓦質土器를 모방해서 만든 중간 단계가 아닐까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瓦質化되지 않은 중간단계로 보고 瓦質과 無文의 중간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李在賢 : 저는 앞에 보이는 표의 1단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三角形粘土帶土器라든지 옆에 黑陶와 비슷하게 생긴 주머니호 같은 경우 靑島유적을 통해 볼 때 2단계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李熙濬 : 결국은 茶戶里 1호 단계가 되면 把手附壺든 주머니호든 瓦質土器가 성립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辛勇旻 선생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辛勇旻 : 최근에 西安지역의 銅鏡 자료가 잘 집성되어 있습니다. 洛陽 燒溝漢墓는 1960년대에 발굴하여 40년이 훨씬 지난 지금 그 편년 분기는 중국 사람들도 인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金炫希 선생님이 말씀하신 유적들도 사실은 늦은 것입니다. 만약에 傳世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늦어도 저는 적어도 기원전 50년 이전으로 소급해야 되지 않나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土器 편년으로만 얘기한다면 세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며 李在賢 선생님이나 金炫希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銅鏡 문제에 있어서는 銅鏡을 보조 편년자료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인데 만약 銅鏡 자료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金炫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더 올려보아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 彌生時代 출토 銅鏡의 편년자료와 土器 편년자료를 같이 병행해서 생각해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료도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李熙濬 : 金炫希 선생님의 답변에서 道溪洞과 연결시키는 문제에 있어 慶尙南道 金海

일대, 昌原 일대 지형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金海平野로 되어있는 곳은 故金海의 옛 灣이었습니다. 大成洞유적이라든지 良洞里유적은 일종의 항구에 가까운 입지를 갖고 있고 金海 시내의 핵심 지역은 실은 땅이 별로 없는 곳이었습니다. 茶戶里는 거리로 본다면 良洞里에서 5~6km 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만, 지금도 고속도로나 길을 가보면 茶戶里 쪽에서 良洞里 쪽으로 길이 나있고 거길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進永과 昌原 동쪽을 포함해서 낙동강에 면해 있는 하나의 어떤 권역이 아니었겠나 생각하고 있고 사실 거기서 옆의 進永을 넘어 昌原 분지 안으로 들어갑니다만 지형적으로 본다면 이는 또 하나의 어떤 구분된 하나의 단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昌原 茶戶里라고 해서 昌原 분지와 연결하는 것은 곤란하고 金海의 북쪽 낙동강 연안지역의 중심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茶戶里유적의 위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茶戶里 발굴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昌原 茶戶里에서 목곽묘 유적이 확실하게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없을 것 같습니까? 대형 목곽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孫明助 선생님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孫明助 : 낮은 습지 지역에서 목관묘들이 나오는데 발굴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당시 지표조사를 가면 茶戶里유적 산 쪽의 구릉지에 목곽묘들이 일부 있는 것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초기 단계의 목곽묘는 확인되지 않고 3세기의 유물들, 瓦質土器 늦은 단계의 것들이 채집된 적이 있습니다.

李熙濬 : 그런 걸로 보서는 대형 목곽묘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茶戶里유적에서는 辰弁韓 초기의 유적만 발굴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이후 단계의 목곽묘 유적을 조사해야지 大成洞, 良洞里 등 영남 다른 지역의 유적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孫明助 : 茶戶里유적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동안 茶戶里가 누려왔던 권력이나 지배력이 良洞 쪽으로 이전해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세력 분배가 이루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주된 세력 자체가 良洞里 쪽으로 이동해 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李熙濬 : 목관묘가 끝나고 목곽묘 단계에서 영남지방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연구자

들이 공동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孫明助 선생님의 생각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초기 목관묘가 있다는 것은 근처에 초기 취락이 있었음을 얘기해주는 것이고 그러한 취락을 연속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취락은 계속 있고, 사회 우열도 계속 있을 수 있는데 우열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라는 것이죠? 아까 金眩希 선생님도 신분이라는 표현을 발표에서 많이 했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비교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문헌에서의 國邑의 유적인지 일반 邑落의 유적인지 그 안의 취락유적인지 생각하고 비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三國志』 魏書 東夷傳에서 臣智, 邑借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문헌사에서는 같은 질의 우두머리인데 양적인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土器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李熙濬 : 金斗喆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는 孫明助 선생님이 질문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斗喆 : 茶戶里 1호분에서 鑄造鐵斧 2개를 묶어서 이은 경우나 특히 板狀鐵斧가 날이 마연된 것과 아닌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논의가 되었던 연대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朝陽洞 38호를 기원후로 생각하는 주장이 있는데 최근 철기 생산의 시기를 생각하면서 土器의 변화를 인정하면, 그 연대가 약간 소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조양동 38호분과 校洞 3호분의 토기 형식은 거의 같습니다. 燒溝漢墓 2기 같은 경우 제작연대를 기원전 1세기 2~3/4분기로 본다면 조양동 38호분의 전세를 인정하더라도 기원전 1세기 3~4/4분기에 올려 보아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II단계를 50년 정도 연대를 올려 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하여 I, II단계를 나누었을 때 三韓 후기 전반 때에 나오는 板狀鐵斧의 정형화된 형태가 주목됩니다. 이 때의 정형화된 판상철부는 날쪽으로 가면서 측면이 직선적으로 벌어진 형태로서 대형화되어 나타나는데 목곽묘단계가 되면 양 옆이 평행하다가 날쪽으로 벌어지는 형태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林堂洞, 八達洞에서 다른 형태의 소형 板狀鐵斧가 나타나며, 茶戶里에서 대형화된 板狀鐵斧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달리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茶戶里

1호분의 板狀鐵斧 같은 경우 끝의 날만 갈아서 쓰는 경우 등을 보면 대형화된 板狀鐵斧에 대한 평가가 좀 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校洞유적을 茶戶里 2단계로 보는데 2·4·5·10호에서는 八達洞보다 더 작은 소형의 板狀鐵斧가 나타납니다. 이는 철을 입수하는데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茶戶里 1호분에 앞서서 나오는 板狀鐵斧의 소형화되고 정형화되지 않은 형태를 辰弁韓의 철기와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龍田里 같은 경우 板狀鐵斧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생산과 입수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粘土帶土器단계까지 철생산이 이야기되는데 이것은 자료를 더 기다려 봐야 할 것입니다. 三韓 후기 전반 단계의 철기는 변화가 더디지만 목곽묘단계에 가면 모든 형식의 철이 정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 단계인 3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1~2기의 변화는 말하기 어려운 것이 1기에는 철이 적기 때문인데 3단계에서는 土器 변화만큼 철기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기에 변화가 집중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李熙濬 : 孫明助 선생님, 답변에 대해서 더 질문할 것이 있습니까?

孫明助 : 板狀鐵斧를 철 소재로 보고 소형과 대형, 정형화된 것에 기준을 두셨는데 茶戶里 1호분에서 정형화된 것이 나오지만 다음 단계에서도 소형화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시기적인 부분보다는 철을 수급할 수 있는 그 당시 집단의 차이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순히 板狀鐵斧 하나만을 가지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즉, 철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板狀鐵斧라는 것은 생산된 철을 가지고 또 만드는 과정입니다.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철의 수급이 원활하였는가의 차이이지, 그것을 공급받는 곳에서 차이를 두는 것은 한 단계를 지나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金斗喆 : 정형화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자면, 정형화된 철기가 상당기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정형화된 철기를 처음부터 樂浪으로부터 입수를 했다면 이는 끊임없이 입수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분의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 연대가 200년 이상이 됩니다만 대형화되고

정형화된 철기가 계속해서 꾸준히 그런 형태를 유지되면서 보급되었다는 것은 아까 보급문을 樂浪이나 다른 쪽으로 올린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校洞의 작은 것들은 입수에 있어서 레벨 차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과연 이렇게 큰 철기들을 계속 대량으로 매장할 수 있었느냐 그게 만약에 소재든 뭐든 외부에서 입수했다 한다면 과연 실생활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과감하게 무덤에 대량 사용할 수 있었겠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전 철 생산보다는 이런 쪽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李熙濬 : 이와 관련하여 金一圭 선생님,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金一圭 : 漢 武帝가 철과 소금 전매제를 실시하였는데, 철관이나 마노관을 너무 소홀하게 지나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樂浪 쪽에서는 용해한 흔적이 있는 거푸집이라든지 중국에서는 보이지 않는 문자가 명기된 철기가 보이는데 아직 한반도 남쪽에서는 茶戶里 1호 단계에 선철 제철과 그것을 이용한 鑄造鐵斧를 만든 흔적이 보인다고 말하기에는 현재까지 무리라고 봅니다. 물론 목관묘 단계에 직접 제련에 의한 塊鍊鐵이 생산되어 다양한 종류의 鍛造鐵器가 제작되었다고 봅니다. 목관묘에 부장되는 鍛造제 철기유물이 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는 塊鍊鐵 제련에 의한 결과입니다. 용해 공정에 의한 鑄造鐵器 製作의 소재가 되는 선철제련의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靑島에서 출토된 슬래그를 용해제라고 했는데 분석의 방법 차이에 의해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해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靑島에서 출토된 送風管 편들도 소성된 상태 등이 제련과 용해 과정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 精鍊이나 鍛冶 과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銑鐵 생산 및 斷面梯形 鑄造鐵斧의 제작과 관련시키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합니다.

孫明助 : 靑島의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鑄造鐵斧의 용해로가 아니라 아마 용융점을 높이 올려 녹인 정도의 용해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鑄造鐵斧의 용해로의 개념과는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李熙濬 : 영남지방의 철기 생산과 보급에 대해서 일반 강의를 해주십시오.

孫明助 : 좀 전에 답변했던 것에 부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茶

茶戶里 1호분을 중심으로 대량의 철기가 나타난다고 해서 곧바로 이 지역의 철 생산과 연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이 많이 부장된다고 해서 철의 생산으로 연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3단계 중기 목곽묘 단계에 가서는 板狀鐵斧의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철 생산의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양상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茶戶里 1호분의 성격, 철기의 양이 이전 단계에 비해 분명히 급격히 늘어나지만 그 이후 단계를 보면 그렇게 많은 양이 출토된 것은 아니고 기술적으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茶戶里 1호분 시기에는 생산보다는 교역의 중심에선 집단의 현상이 아닌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李熙濬 : 영남지방 전역을 두고 볼 때 적극적인 증거로 製鍊爐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철의 제련, 생산은 언제쯤으로 볼 수 있습니까? 목곽묘 단계로 가야 합니까?

孫明助 : 확실한 것은 목곽묘 단계로 가야합니다. 八達洞을 중심으로 林堂洞으로 연결되는 라인이 있는데 빠른 단계의 철기들이 나옵니다. 八達洞과 林堂洞의 이른 시기 것은 茶戶里 1단계와 비교가 가능합니다. 두 양상은 철기 부장상태 등이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지역적인 생산보다는 특정 지역에서의 일괄적인 공급체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문제는 과연 이것이 어디에서 언제부터 이루어진 것인가 인데요, 이는 남부지역 철기 연구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북 이북지역, 예를 들어 忠州 등에서 일괄적인 수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熙濬 : 영남 이외 지역에서의 입수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板狀鐵斧라든지 鑄造鐵斧가 입수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쪽 지역에서 비슷한 유물이 나와주어야 하는데요.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李在賢 선생님 의견 없습니까?

李在賢 : 목곽묘에서 나오는 鑄造鐵斧는 영남지역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鑄造鐵斧를 만들려면 제련과 용해가 이루어져 하니까, 목곽묘 단계에서는 철기가 생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金斗喆 : 製鍊爐가 언젠가는 나오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간접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자면요,蔚

山 達川광산을 보면 철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야기된다고 봅니다. 爐 같은 경우 龍田里에서 나왔는데 龍田里에서는 다른 형태의 板狀鐵斧가 나오기 때문에 철 생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孫明助 : 鑄造鐵斧의 변화는 한반도 수입 단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가 가장 큰 것이 梯形 鑄造鐵斧의 출현입니다. 茶戶里 1호분에서 가장 빨리 출토되고 있는데 樂浪土城에서도 조금 더 대형의 鑄造鐵斧가 출토되고 있습니다. 시기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새로운 형태의 梯形 鑄造鐵斧의 시작은 굉장히 이른, 樂浪 성립 단계인 기원전후한 시기부터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板狀鐵斧만이 아니라 鑄造鐵斧가 오히려 더 큰 유통 소재로서, 각 지역에 도착해서는 제작 소재로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었다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으로 보았을 때 서북한지역, 기술적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지역에서 어느 순간 남부지역으로 옮겨 왔다고 봅니다.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까지 똑같은 형태의 鑄造鐵斧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생산물이 아니라 교역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茶戶里 1호분에서 나오는 것들은 수입의 결과이고 2세기대가 지나서는 이 지역의 철 생산이 확보되면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鑄造鐵斧의 출토가 지역 내 철 생산과 직접적으로 결부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李熙濬 : 후쿠오카 대학의 武末純一(다케스에 준이치) 선생님, 영남지방의 철기에 대해서 새로운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武末純一 : 저는 鑄造鐵斧가 茶戶里 1호분보다 八達洞 78호분에서 나오는 것이 시기적으로 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때부터 철기 생산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철기 생산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茶戶里 1호분에서 나오는 板狀鐵斧나 鑄造鐵斧가 그 가까이에서 생산된 것인지, 아니면 멀리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鑄造鐵斧, 板狀鐵斧가 辰弁韓의 특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李熙濬 : 『三國志』 魏書 東夷傳에서 보면 나라에서 철이 생산되어 수출한다고 쓰여 있는데 대개 직접적으로 弁辰에 연결된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철이 난다는 말을 반드시 생산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金海가 철의 생산지로서 유력한 곳이었느냐 철의 집산지로서 유력한 곳이었느냐에 대해서 孫明助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孫明助 : 저는 茶戶里지역이 지역적인 철 생산지보다는 집산지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三國志』 魏書 東夷傳의 기사가 언제의 기사인지, 茶戶里 1호 분대의 기사인지, 오히려 기원후 2세기대인 3기에 해당하는 기사인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보면 樂浪은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이전부터 이 지역과 樂浪 간에 물자의 교역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철 생산의 기술 이전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李熙濬 : 철기와 관련해서 八達洞 45호분에서 장방형 鑄造鐵斧와 梯形 鑄造鐵斧가 같이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빠른 단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茶戶里에서 두 개가 묶여 나온 것을 근거로 소재라고 말하는데 八達洞까지 생각하면은 반드시 다 소재냐, 소재라면 다른 곳에서 완제품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武末純一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武末純一 : 저는 鑄造鐵斧의 경우 일본에서는 원료 철(그것을 가지고 소재를 만들 수 있는 원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두 개 다 소재와 원료로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반드시 원료 철이다 아니면 파비와 같은 農具라고 양분해서 볼 수는 없고 양쪽 다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金一圭 : 斷面梯形 鑄造鐵斧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 八達洞 78호에서 가장 빠른 梯形 鑄造鐵斧가 나오는데 제작년에 제가 발굴한 加平 大成里에서 樂浪製 유형의 유물들만 일괄적으로 출토된 적이 있습니다. 花盆形土器, 繩文土器, 点烈文으로 나타나는 완전히 漢代 이후의 타날문양 瓦質製燒成土器, 鐵莖附銅鏃, 札甲片들이 나오는데 함께 출토된 鑄造鐵斧는 八達洞 78호와 거의 동 형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물 양상을 통해서는 영남 쪽과의 교류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따라

서 이 시점부터 樂浪 쪽에서도 이러한 형식의 梯形 鑄造鐵斧가 생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대는 기원전 1세기 전반입니다만, 기원전 2세기 말까지 편년되는 유물도 출토되었습니다. 大成里유적의 樂浪유물들과 함께 말 이빨이 동반 출토되었는데 이것의 AMS 분석에서도 유사한 편년이 나왔습니다.

李熙濬 : 아까 樂浪土城 말씀하셨지만 거기서도 梯形 鑄造鐵斧가 나왔는데 크기가 조금 큼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孫明助 : 초기의 상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강 이남지역에서는 鑄造鐵斧 중심의 소소리라든지 합송리라든지 청동기제품에 鐵斧, 鐵鑿 정도만 철기화된 양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서남부지역의 양상이라면 동남부지역에서는 鑄造鐵斧에 철검이 붙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茶戶里 단계의 철기 양상입니다. 따라서 한 지역의 철기 문화가 갑작스럽게 생산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고 서남부지역 철기문화의 이전지역인 黃海道지역이라든지 平壤 주위 樂浪지역의 철기문화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지역 철기문화의 변동은 연의 철기 유입 단계, 자체 제작을 통해 청동기 중 도끼만 철기로 대체되는 단계, 철검·도자·재갈 등 鍛造제품이 鑄造제품과 같이 출토된 단계 등 4·5가지 단계들이 나타나야 하고 각 단계가 역사적 사건, 예를 들어 衛滿朝鮮, 準王 南下, 樂浪 등과 연결되어야 하고 또한 남부지역에서의 적극적인 수용자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철기문화의 수급 단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茶戶里 1호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초기의 수입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鍛造철기문화, 단야작업이 행해지면서 조금씩 철기문화를 접하게 되고 점차 적극적인 철기문화의 수용이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茶戶里 철기문화라고 봅니다. 따라서 생산보다는 수입을 통해 수용 형태를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당시 정치적, 사회적 관계를 해결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金斗喆 : 중국 燕도, 동북지방도 철기 생산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귀한 철기들을 왜 남부지방에 적극적으로 주었겠습니까? 梯形철기를 말할 때 斷面梯形的 鑄造철기가 1단계에 나오는 것들은 斷面이 납작하지만 2단계부터는

폭이 좁아지고 높이와 1:1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쪽에서 정형화된 하나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철기 생산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鑄造鐵斧와 板狀鐵斧를 말씀하시는데 鍛造鐵斧의 양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보유율이 많으며 이 鍛造鐵斧는 형태가 정형화된 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단야 공방이 있으니 鍛造를 한다지만 엄청 많은 양들을 실생활에 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鍛造鐵器 양이 상당히 많고 1단계부터 나오고, 본격적으로 2단계부터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의 철기문화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李熙濬 : 東萊 萊城유적에서 기원전 2세기 후반의 鍛冶 유구가 확인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목곽묘 단계부터 생산되었다고 보면 너무 늦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철 생산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孫明助 : 제가 얘기한 부분이 철기 생산이 늦게 되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남부지역에서는 기원전 2세기부터 벌써 단야기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철기 생산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철의 생산은 그것보다 조금 더 늦게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李熙濬 : 혹시 다른 견해 없으십니까? 隍城洞유적을 발굴하신 李榮勳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李榮勳 : 저는 孫明助 선생님과 의견이 다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단계, 茶戶里 1호분 단계에는 제련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斷面梯形的 鑄造鐵斧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철 소재는 덩어리로 만들죠. 무엇 때문에 合范으로 만들고 鑄部까지 만들었겠습니까? 저는 소재가 아니라 기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집산지 얘기를 하셨는데 주변에 철 생산 장소가 있어야 집산지 얘기를 하지 생산이 없는데 집산지가 있겠습니까? 武末純一 선생님이 얘기하신 특산품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雙合范보다는 만들기 쉽기 때문에 영남지역에서 대량 생산을 위해 창안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李熙濬 : 그럼, 철기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동기에

대해서 발표하신 李清圭 선생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清圭 : 청동기는 거푸집이 전무한 상태여서 趙鎭先 선생님이 문제 제기한 제작 단계의 편년을 말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金泉 松竹里의 변형 비파형동검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초기형으로 이르게 보고 있고, 최근에 일본에서도 彌生 연대에 대한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동검 자체의 연대를 올리는 경향이 있으나 송죽리 동검의 연대는 공반되는 유물, 지식묘의 연대를 이르게 보지 않는 한 한계가 있지 않나 합니다. 昌原 德川里의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흥도와 늦은 단계의 지식묘의 연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맞물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얘기한 3, 4단계와 관련하여 錦江유역의 槐亭洞 단계의 청동기가 영남지역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단계의 청동기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湖西地方처럼 다양한 청동기가 없기 때문에 이 당시의 청동기 중심지는 錦江유역이고 영남지역은 주변이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시대순으로 말씀드리면 多紐細文鏡이 부장되다가 완전히 前漢鏡으로 전환되는데 연대는 기원전 1세기 후반으로 보이며 細文鏡은 하한이 늦어도 기원전 1세기로 생각됩니다. 그 이전에는 수장급의 무덤에 부장되던 것이 중국의 수입품으로 대체된 현상은 細文鏡이 동아시아 최고도의 기술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기술은 있었으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요가 없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작기술의 문제가 아닌 古朝鮮이 붕괴되고 당시 漢郡縣으로 바뀌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막연하지만 細文鏡이라 하면 전통적인 古朝鮮, 초기 三韓과 관련되는데 그 체제의 붕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前漢鏡, 영남지역 청동기 등등으로 볼 때 낙동강 중류, 琴湖江유역이 거점처럼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樂浪이 中原 유물을 三韓지역으로 보급하는 거점 역할을 하였는데 그 역할과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중계 무역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형식의 청동기가 제작되고 서북한의 이른 유물들이 琴湖江, 兄山江유역에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방지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前漢代의 유물 내지 화폐는 낙동강 지류변에 있고 後漢代는 남해안과 濟州島 島嶼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무역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형 물자와 대규모의 무역로가 남해안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지 여전히 하천, 저지대 육상루트를 통해 위세품은 교역되었다고 봅니다. 前漢代의 화폐는 무덤에 묻혔는데 後漢代 화폐는 무덤에 묻힌 예가 없습니다. 이는 화폐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생겼다고 봅니다. 막연한 추측입니다만, 板狀鐵斧나 철 소재가 특산품이라고 하면, 또한 이 특산품이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중국에서 온 화폐는 실제로 거래 수단으로써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목관묘에서 목곽묘에서 넘어가는 것은 기원후 50~100년 사이인데, 과연 목관묘 단계가 『三國志』 弁辰韓條에 해당하는 목곽묘 단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범위하게 얘기할 때는 말할 수 있지만 목관묘 단계를 어느 지역은 辰韓, 어느 지역은 弁韓이라고 하는 것은 魏書 東夷傳의 기록과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목관묘가 집중적으로 조성되는 공동묘지 구역에는 목곽묘가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弁辰韓 자체 내에서의 변화보다는 외부, 漢郡縣의 변화에 의한 영향이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목관묘 단계의 사회질서 내지 시스템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내재적인 요인이 있었고 그것이 외부적인 변화와 맞물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재적인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熙濬 : 종교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답변이 한 가지 빠진 것 같은데요.

李清圭 :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多紐細文鏡 같은 경우 당대 최고의 제작기술로 만든 것으로 당시 수장의 제사장적 성격을 말해주는 최고의 위세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을 가진 장인이 모두 일본으로 이주해 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통적인 샤머니즘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古朝鮮이 멸망하고 漢郡縣이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요소가 붕괴된 셈이고 샤머니즘 제사장의神器라고 받아들였던 동경으로 전통적인 제사장의 신분을 과시할 필요가 없어져서 생산이 중단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李熙濬 : 趙鎭先 선생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趙鎭先 : 多紐精紋鏡의 편년관, 형식분류관에 관해서는 李清圭 선생님과 다른 생각을 가

지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傳 論山 國寶鏡, 大谷里 銅鏡의 연대가 가장 이른 것이라고 보고, 철기와 공반되는 소형 多紐鏡들이 가장 늦은 단계의 것이라고 봅니다. 기술은 있었으되 수효가 없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多紐鏡이 大谷里 이후 咸平 草浦里 등 문양이 세밀한 상태에서 기술이 퇴보한다고 생각합니다. 傳 論山 國寶鏡은 평면경이고 大谷里鏡은 아주 얇은 오목경이고 시대가 늦은 것들은 심한 오목경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시대적인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양이나 크기의 개념이 점진적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해서 이념도 중요하겠지만 기술적인 퇴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李清圭 : 편년관의 차이 문제인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國寶鏡이 가장 늦은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趙鎭先 선생님의 경우 반대로 가장 이른 단계로 보는 것입니다. 즉 가장 발달된 銅鏡에서 늦은 단계의 퇴보형으로 가다가 점진적으로 前漢鏡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편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李熙濬 : 朝陽洞 5호 같은 경우 素文鏡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보면 앞 銅鏡의 편년이 어쨌든 쇠퇴한 단계에서 前漢鏡이 들어오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화폐 얘기가 나왔는데요. 과연 화폐로 인식하고 樂浪, 帶方과 교역을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李清圭 :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부 소수가 혹시 외래 유물을 거래했을 때 사용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화폐의 수단으로 인정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본에도 그런 증거가 나오지만, 발굴된 화폐를 보면 구멍이 뚫려 있어 펜던트 형식으로 맨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濟州 山地港, 錦城里에서도 나옵니다. 이로 보아 중국화폐를 일반적인 거래수단으로 인식해서 무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李熙濬 : 화폐의 기능을 했느냐 아니냐는 교역권 내에 편입되었느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간 관계로, 李容禧 선생님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정 토론자가 없으셔서 발표 내용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다른 분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철기 제작 방법이 樂浪 멸망 이후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백제지역 무덤에서 나온 것 중 樂浪 칠기 제작 기법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앞으로 분석하실 때 목관묘가 아닌 목곽묘 단계의 유물을 분석해서 그 변화상을 확인해 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李容喜 : 百濟 原州 法泉里는 4세기 중엽의 고분으로 羊形青磁도 나왔는데 이것이 자체 제작품인지 중국 쪽 수입품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骨粉下地라는 것 자체가 漢代에서부터 시작해서 唐代까지 이어집니다. 그것이 물건의 수입인지 기술의 수입인지는 모르지만 중국식 骨粉下地를 쓰는 것 중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것이 法泉里입니다. 三韓時代 漆 자료들은 여러 군데에서 출토되지만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좀 더 이루어진다면 시대에 따른 칠기법의 변화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李熙濬 :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辛勇旻 선생님, 토론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辛勇旻 : 우선 부장 위치나 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청동기시대에 비해서 무덤의 외형적인 크기가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사회적인 葬俗의 변화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古朝鮮 사회가 종말을 고하고 三韓時代에 들어오면서 목관묘가 葬俗의 주종을 이룹니다. 이러한 변화가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외형적인 의미보다는 내부적인, 질적인 의식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漢四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목관묘라든지 목곽묘의 채용은 漢四郡보다 훨씬 더 이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漢四郡과의 직접적인 관련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무덤의 외형적인 크기보다는 의식의 변화에 따른 매장 습속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했고 무덤의 매장 프로세스에 대해 주로 집중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위계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조사된 무덤의 숫자, 조사 방법상의 문제, 자연환경의 제약 등으로 인해 선학 동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통계에서 유물 매장 프로세스를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3등급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에 대해서 깊이 통감합니다. 조사된 무덤의 수량 한계와 도굴, 여러 조사 결과치에 대한 발굴자의 인식 부족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통계치의 범위가 辰弁韓 다 합하여도 500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弁韓지역의 최고 등계가 한 개밖에

없는데 왜 이것을 별도로 취급하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위계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서를 받고 과연 茶戶里 1호분의 주인공이 어떤 신분이라는 것에 李健茂 선생님께서는 邑長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邑長이 되어야 할 필수조건은 아닐지라도 邑長이라면 印綬(도장) 부분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三國志』 魏書 東夷傳을 보면 邑長에게 도장과 의책을 주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호암미술관에서 慶北 迎日 출토 품이라고 되어 있는 ‘晉率善穢佰長’ 명문이 찍혀있는 도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장은 고구려 유적에서도 4개가 출토된 바 있습니다. 물론 『三國志』 魏書 東夷傳의 연대가 茶戶里 1호분의 연대와는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이와 비슷한 유물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붓이나 五銖錢 등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붓이 나온다고 해서 이것을 수장급의 무덤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적어도 수장급의 무덤이라면 竹簡이 나옵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구분을 지워주는 것이 위계화 부분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 시기에는 정치체의 시스템이 중심지의 이동이라기보다는 茶戶里는 茶戶里대로, 良洞里는 良洞里대로, 金海 大成洞은 大成洞대로 각각의 중심체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중심지가 이동하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상입니다.

李熙濬 :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茶戶里 1호 주인공이 과연 어떠한 사람이나, 아무래도 통시간적으로 본다면 가까운 德川里 지석묘의 주인공하고 비교한다든지 大田 槐亭洞유적의 주인공과 비교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李清圭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李清圭 : 우선 槐亭洞 주변에 무덤이 없는 것이 맞겠죠?

李熙濬 : 그건 확인이 안 됩니다. 南城里 같은 경우는 트렌치를 넣어서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李清圭 : 저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만, 혹시 茶戶里무덤군 전체가 어느 우월한 구성원의 무덤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李熙濬 : 유적군 전체가 우월하다는 것은 다른 유적과 비교해서입니까?

李清圭 : 이를테면 일본의 吉野ヶ里(요시노가리) 분구묘가 꼭 같지는 않습니다만, 분구묘가 공동묘지로 있는데 그것이 吉野ヶ里의 우월한 집단, 우월한 지위를 가진 대접받는 사람들의 무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李熙濬 : 茶戶里유적군 자체가 다른 데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 大成洞, 良洞里 유적 등과 비교해서입니까?

李清圭 : 그런 것은 아니고요. 良洞里하고 大成洞하고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李熙濬 : 중심 취락 또는 중심 邑落의 지배층이라고 보는 것이군요.

李清圭 : 그러나 槐亭洞의 경우에는 것처럼 후속적인 피장자가 묻히지 않은 셈이 되겠죠.

李熙濬 : 그렇지만 茶戶里 1호분의 경우에도 그 정도로 厚葬한 후속적인 묘는 없지 않습니까?

李清圭 : 그게 결국은 가장 추앙받는 그런 사람만 우선 크게 厚葬을 하고 그 다음 세대에 또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문제네요. 茶戶里 1호묘가 가장 빠른 단계인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李熙濬 : 그렇습니다. 그 정도 부장이랄까 한 묘로서 그 뒤에 연결되는 묘가 왜 없느냐? 혹시 趙鎭先 선생님 의견 있으신지요?

趙鎭先 : 지식묘도 마찬가지로 茶戶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무덤을 바라볼 때 먼저 관점 하나가 정립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덤군을 볼 때 그것을 요즘의 공동묘지적인 성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先山的 성격과 가깝게, 가족 묘 성격으로 볼 것인지가 먼저 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논문들을 보면 한 군집 내에서 계층을 먼저 나누는데 집중하는 논문들과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구분하는데 집중하는 논문들로 크게 구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선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가족 내에서 우월한 분들이 독립해서 선산을 만들고, 그 후손들은 대부분 그보다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조의 선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茶戶里 같은 경우도 1호묘를 그렇게 본다면 방금李清圭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럼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李熙濬 : 아까 질문하려고 했는데 안 계셨던 李盛周 선생님, 아까 金炫希 선생님 발표에도 있었는데 예전에 지배적 친족집단의 형성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관묘군의 등장을 이와 관련하여 말씀해 주세요. 茶戶里 1호의 주인공하고 德川里 지석묘 주인공, 槐亭洞까지 포함해서 비교하면 더 좋습니다.

李盛周 : 茶戶里 분묘군이 발굴되고 난 후 족장의 권력 확대과정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 제안된 적이 있습니다. 즉 일반 집단묘에서 유력 집단묘가 나오고 유력 집단묘에서 유력 개인묘가 나온다는 모식이 발표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 모식은 우리나라 남부지방 족장사회의 발전과정에 대한 설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식보다 저는 고분군이 일정 지역 내에서 위계화 되는 과정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茶戶里 1호분의 목관묘 단계 내에서는 지역 내에 특출한 개인이 나타기는 하지만 특출한 고분군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3세기 후반 정도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의 三韓 小國 정도 되는 공간적인 범위, 대체로 영남지방의 한 분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분지의 중심지에 단 하나의 유일한 중심고분군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일정 지역 내의 집단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상황은 『三國志』 魏書 東夷傳에 國邑과 邑落들 사이의 관계를 서술한 부분에서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지역 안 고분군들 사이의 서열화는 해당 고분군을 형성시킨 친족들 사이의 서열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서열화를 통해 國邑을 지배하는 친족집단이 등장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중심고분군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러한 서열화 혹은 위계화의 과정은 초기국가로 발전하는 단계에서는 무언가 변화가 나타나는데 혈연적인 관계보다는 또 다른 측면의 서열화가 더 중요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초기국가 단계가 되면 중심고분군 즉 王墓群 안에 일정한 수준 이하의 墓들이 탈락되는 현상이라든가 하는 과정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발생기의 중심고분군을 지배적 친족집단의 고분군이라고 말했습니다.

李清圭 : 茶戶里 전체 墓 또는 그 일부가 친족 관계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李熙濬 : 답변해 주십시오.

李盛周 : 지식묘의 축조 시기로부터 연속적으로 이어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증할 만한 주장은 못하겠습니다.

李熙濬 : 논증보다는 하나의 모델링을 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李清圭 : 아까 吉野ヶ里 분구묘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區劃墓이죠. 그것은 여러 학자들이 동일 친족집단이라고 추정하지 않고 그 吉野ヶ里 마을에서 우월한 엘리트들만 거기에, 그 구역에 마치 국립묘지처럼 문혔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서 참고삼아 말씀드린 것입니다.

李熙濬 : 그와 관련해서 李在賢 선생님, 유적 위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한 유적 안에서의 위계가 아닌 유적 사이의 위계에 대해서 李清圭 선생님은 목관묘 단계에서는 고고학적으로 알아내기 어렵다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朝陽洞 유적은 목관묘, 목곽묘가 모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密陽 校洞유적 같은 경우 목관묘만으로 되어있고, 같은 지역 密城高等學校유적도 목관묘 단계만 있습니다. 또 예를 든다면 慶山 新垈 - 夫迪유적도 목관묘만 있는데, 그런 경우 과연 위계가 없다고 해야 되는 것인지 朝陽洞과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떻습니까?

李在賢 : 결국 계층이나 위계, 신분이 유지되려면 계속적으로 그 지위가 계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傳承이 되어야 하는데 세습이 안 되면 위계나 신분으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茶戶里의 경우 1호는 도굴 피해가 적어서 유물이 많이 나온 경우이고, 다른 유구들도 도굴당한걸 보면 腰坑까지 파괴당한 것이 많습니다. 도굴당하지 않은 것은 유물이 없습니다. 따라서 茶戶里 1호도 茶戶里의 특출한 한 개 무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세대 간 전승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金斗喆 : 문제가 되는 부분은 茶戶里 발굴자들만의 숙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

로 우리가 말하는 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적에서 조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계승 관계를 확인하는 부분이 약합니다. 다호리유적이거나 이런 목관묘 사회에서는 累代的인 계승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李熙濬 : 꼭 계승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닌 집단적인 계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李盛周 선생님이 아마도 지배적 친족집단이라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유적 간의 비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목관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려운데 목관묘까지 생각한다면 유적에서 나타나는 양상에 무언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시간이 2~3분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갑작스럽겠습니다만, 오늘 주제가 茶戶里에 중심을 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茶戶里유적 조사나 연구에서 어떤 점이 좀 더 강조되어야 할지 특히 발굴에 참가한 분들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孫明助 : 오늘 제가 철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었는데요,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좀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茶戶里유적의 목관묘는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2세기까지 300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茶戶里유적이라고 하면 1호분에 굉장히 깊은 고정관념에 박혀서 茶戶里유적을 전반적으로 조금 한쪽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안에는 金斗喆 선생님이 발표하셨듯이 1, 2, 3기라는 구분이 있고 그 안에서 발전 단계, 유물의 변화상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茶戶里유적에 대해서는 시간적 간격을 충분히 보고 연구해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제가 아까 鑄造鐵斧라든지 철 생산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저는 생산집단도 지역 거점생산이 있고 지역에서 소수단위로 생산되는 단위가 있으며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들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 단계에서 생각해볼 때 철 생산과 鑄造鐵斧의 생산이 茶戶里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한 지역에서는 일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남부지역 전체에서 철 생산이 안 되고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은 아니기에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李熙濬 : 金斗喆 선생님 1분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金斗喆 : 사실 茶戶里 1호분에서 화려한 유물이 나오고 다른데 비교도 안 되는 내용이 많습디다만 제가 검토한데서는 茶戶里 자료를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것이 뛰어나고 좋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동질의 것을 비교하는 것이 연구를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발표를 끝으로 20년 만에 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니 짐을 하나 더는 기분입니다. 정말 깨끗한 보고서가 나오는 것이 일차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물관을 이직한 입장에서 보고서 발간에 힘써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茶戶里 연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李熙濬 :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보고서가 나와야 완결되고 연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장시간 발표하시고 토론해주신 분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거의 아무도 안 움직이시고 경청해주신 방청객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 20周年 國際學術심포지엄
둘째날 종합토론 녹취록

좌 장 : 李榮勳 (國立慶州博物館)

발표자 : 白承玉 (咸安博物館) 李盛周 (江陵大學校)

鄭仁盛 (嶺南大學校) 王培新 (吉林大學)

井上主稅 (奈良縣立橿原考古學研究所)

武末純一 (福岡大學) 崔盛洛 (木浦大學校)

토론자 : 權五榮 (韓神大學校) 朴升圭 (嶺南文化財研究院)

金武重 (韓國考古環境研究所) 金吉植 (龍仁大學校)

李柱憲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申敬澈 (釜山大學校)

金正完 (國立中央博物館)

李榮勳 : 오늘 종합 토론을 맡은 李榮勳입니다. 먼저 白承玉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 지정 토론자인 한신대학교 權五榮 선생께서 토론해주시겠습니다. 토론 요지는 자료 집에 실려 있기 때문에 요점만 얘기하시고 바로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權五榮 : 한신대학교의 權五榮입니다. 白承玉 선생님의 이번 발표는 三韓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서 관련 기사를 재음미하고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 대한 주제인 茶戶里의 정치체에 대한 언급은 직접 하고 계시진 않지만 辰弁韓 사회의 형성과 삼국으로의 발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맞춰서 세 가지 정도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자께서는 三韓의 형성시기를 기원전 3세기로 소급시키는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근거로써 기원전 194년 準王이 남쪽으로 도망쳤을 때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기원전 2세기 초에 한반도 중부 이남이 韓地라고 불렸음을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準이 海中에서 왕노릇을 하였다”라는 기사 of 의미를 해석하시면서 準이 韓王으로 존재했던 韓地는 한반도 중부 해안지역보다 거리가 먼 지역으로 볼 수가 있다. 즉, 準王의 南來지점을 기왕의 후보지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충청·전라 지역을 포함한 서남

부 지역은 물론 弁辰韓 지역을 후보지로 넣어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번의 새로운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는 좀 더 구체적 입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표자의 이러한 견해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弁辰韓 지역은 충청·전라 지역과 마찬가지로 準王이 왕노릇을 했던 韓地의 하나의 후보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논증을 거쳐야 할 단계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가정을 전제로 하고 나서 해석들이 타당성이 있다면 기원전 194년 무렵 弁辰韓 지역에 연맹체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弁辰韓 지역 연맹체의 형성 문제는 또 다른 논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三韓에서 삼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曹魏와 東方 세력 간에 전개된 正始年間 전쟁에 대해 새로운 견해를 발표하고 계십니다. 전쟁의 주체에 대해 目支國이나 百濟냐 해서 馬韓 지역에서 주체를 삼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설이었는데 반해 白承玉 선생님께서는 辰韓과 弁韓까지 이 전쟁에 참여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역시 논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三韓 전체가 전쟁에 참여하였다면 완전히 국제전이 되는 것인데요, 三韓의 각국들은 어떤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기에 이러한 전쟁이 가능했느냐의 문제와 관련하여 발표자께서 이 전쟁의 배경으로서 이런 네트워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쟁의 결과로 인해 기존에 서서히 진행되어 오던 연맹체 내부의 결속력이 더욱 강화 촉진되었다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형성이 전쟁의 사전 배경인지 전쟁의 결과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발표자 견해대로 三韓의 형성을 기원전 3세기경으로 본다면 弁韓지역에 해당되는 유적으로는 무엇을 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러한 연대관에 의할 때 昌原 茶戶里 유적은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문제가 생깁니다. 최근에 많은 자료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弁韓지역에서 가장 선진적인 정치체는 進永평야의 昌原 茶戶里 유적, 金海 시내 가야의 숲 유적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유적과 三韓 기원전 3세기 설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의 상태에서는 茶戶里에 인접해 있고 양자간의 관계가 주목되는 昌原 德川리 지석묘와 茶戶里 분묘군 간의 관계를 추적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발표를 들었을 때 기원전 1세기 이전에 戰國系 혹은 戰國 유

물이 영남 각지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는 것은 대세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유물이 나오는 것과 그러한 유물을 다량 부장한 우월한 집단이나 개인의 돌출, 그리고 정치체의 형성, 이런 것들은 여전히 아직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白承玉 : 세 번째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弁辰韓과 관련된 기원전 3세기대의 유적과 유물이 弁辰韓 지역에서 나오지 않는데, 弁辰韓의 기원을 어떻게 기원전 3세기까지 올려 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기원전 3세기대의 유적과 유물이 弁辰韓 지역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準王의 남하 문제는 바로 철기 문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準王이 남쪽 弁辰韓 지역으로 왔다고 한다면 거기서도 철기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초기 한반도 남부지역의 철기 전래는 청동기와는 달리 儀器가 아니고 농경구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장되었을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모순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발표문에도 있습니다만, 저는 辰韓 12, 弁韓 12, 馬韓 54개국이라 아니라 國의 수가 훨씬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6의 배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崔盛洛 선생님 발표문에서 狗邪國 단계 이전이 茶戶里가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狗邪國과 다른 小國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지역 연맹체 그러니까 다수의 邑落국가가 모인 지역 연맹체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쟁의 경험으로 왜 결속이 강화되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역 연맹체는 강화되지만 전체 연맹체는 지역 연맹체가 강화되니까 오히려 느슨해진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문제인데요, 선생님 질문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準王이 남하한 지점이 구체적이지 않다, 弁辰韓지역의 어디냐, 꼭 집어서 이야기해 달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準王이 남하한 지점이 정확히 어디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準王 자체가 남쪽으로 왔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準王 단계인 기원전 2세기 초, 저는 기원전 3세기로 표현을 합니다만, 기원전 3세기

경 중국 戰國系의 문화요소가 남쪽으로 전파되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弁辰韓지역에도 準王 남하 시점에 이미 철기 문화가 도입되고 중국의 선진문화가 남쪽으로 전파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점과 관련해서는 좀 더 문헌에 입각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三國志』 魏書 東夷傳 韓條 기사는 馬韓·辰韓·弁韓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馬韓 기사에서는 弁辰韓 기사를 상당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三韓 전체에 대한 내용 다음에 나오는 것이 準王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왜 準王에 대한 기사를 썼느냐는 겁니다. 陳壽가 『三國志』를 쓴 시기가 280년대입니다. 기원후 3세기 중후반인데요, 準王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는 裴松之의 註가 많습니다. 裴松之는 이 註를 429년에 썼습니다. 『三國志』가 쓰인 연도가 280년인데 裴松之가 註를 쓴 것은 429년인 것이죠. 『三國志』 편찬 후 149년 이후에 裴松之가 註를 썼습니다. 裴松之가 『三國志』에 주를 붙인 이유는 보는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裴松之는 상당한 자료를 모아서 註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 準王 南來 기사 다음에 왜 그렇게 주를 많이 붙였을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註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辰韓 관계 기사 다음에 나오는 주에 辰韓 右渠帥 廉斯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準王이 南來한 지점하고 廉斯鏑의 출신 지역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를 그렇게 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裴松之가 가지고 있던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註를 쓴 것입니다. 辰韓 右渠帥 廉斯鏑 기사를 왜 거기에 쓰느냐 저는 바로 準王이 南來한 지점이 辰韓 지역과 상당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썼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辰韓 右渠帥, 辰韓의 오른쪽에 있는 渠帥, 그래서 弁韓의 渠帥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弁韓의 渠帥라는 설에 저는 따르지는 않습디만, 만약에 그 설이 성립된다면 사실은 茶戶里 1호묘의 성격이 저는 廉斯鏑 같은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廉斯鏑은 통역관이면서, 小國의 首長이면서, 교역을 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茶戶里 1호 목관묘 출토 유물의 성격을 보면, 붓의 출토로 보아 주인공은 한자 문화를 습득한 사람으로 보이며, 대외교역과 관련 있는 지역 수장으로 추정됩니다. 그 사회적 성격이 상당히 廉斯鏑과 닮은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茶戶里 1호묘 피장자는 廉斯鏑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그것은 많

이 나아간 추정입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準王의 南來 지점의 증거가 약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 저는 방금 설명해드린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榮勳 : 그 내용이 발표문에도 있는데 아마 시간 때문에 말씀 못하신 것 같고요. 권선 생님 추가할 코멘트 있으면 해주시죠.

權五榮 : 사실 제가 작년에 三韓과 관련된 문헌 연구를 찾아봤더니 최근 10년 동안의 연구가 거의 없더라고요. 뭔가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白선생님께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려고 하시니까 앞으로 연구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고요. 하나 반가웠던 것이 저랑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 보완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三國志』에 나오는 狗邪國과 茶戶里를 연결시키려는 노력에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三國志』에 나오는 狗邪國은 3세기 단계의 모습이고 전 단계에 비해 이미 상당히 커진 규모, 그리고 내부에 邑落을 갖추고 國邑이 있는 이런 단계의 國입니다. 茶戶里 같은 경우는 『三國志』에 나오는 국보다 몇 백년 선행하는 정치체거든요. 그랬을 때 狗邪國과 茶戶里를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茶戶里 분묘군을 축조한 세력이 狗邪國의 하나의 邑落이나 아니면 國邑이나 이런 무리한 논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기원전 1세기 정도 단계에는 아직 狗邪國 정도의 규모를 갖추지 못한 여러 개의 國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進永평야에는 茶戶里가 중심이 된 작은 國, 물론 그 國의 이름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三國志』에 정착 될 때는 이미 狗邪國에 통합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원전 1세기 단계의 國과 3세기 단계의 國을 등치시켜서 연결시키기보다는 역시 기원전 1세기 단계 金海평야에는 가야의 숲과 구지로로 이어지는 목관묘를 축조한 집단이 있고, 進永평야엔 따로 있고, 그러다 3세기 단계에 가서 金海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國邑과 邑落의 관계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결국 茶戶里지역에서 4세기 단계 이후의 목곽묘들이 과수원 쪽에는 많지만 2, 3세기 단계의 분묘들이 없거나 현저하게 돌출되는 현상이 보이지 않은 것은 그렇게 설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茶戶里도 이름이 사라진 또 하나의 작은 國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李榮勳 : 白承玉 선생님 발표에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함께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大邱博物館의 咸舜燮 선생님의 질문입니다. 白承玉 선생님께서 三韓시대를 확대하는 견해를 피력하셨는데 그 이전 시기의 韓과는 차별해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요컨대 맹아 단계일 수 있는 韓을 성장기 모습인 三韓의 이름으로 확대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白承玉 : 질문의 요지를 제가 정리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韓의 시작과 三韓의 시작을 달리 보아야 된다, 韓에서 분화되어 발전해서 三韓으로 나누어진다는 說인데 사실은 한국 고대사학계에 있어 정설처럼 되어 있는 견해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三韓의 시작이 韓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辰韓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馬韓이 형성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準王이 南來한 지점이 馬韓지역만이라면 그 얘기가 가능한데 아까 설명했다시피 그것도 좀 그렇고요. 또 하나는 韓條에 왕이 네 번 나옵니다. 陳壽가 『三國志』를 쓰면서 왕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陳壽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왕에 대한 개념은 세 가지 정도의 모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殷周시대의 王의 개념을 陳壽가 알고 韓條에 썼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머릿속에 있었던 辰韓대의 王의 개념을 陳壽가 『三國志』에 쓸 수가 있죠. 또 하나는 三國時代 魏나라의 王의 개념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어느 시대의 왕이든 간에 陳壽가 생각하고 있는 왕은 한 나라의 장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들이 모인, 즉, 三韓지역을 생각하면 어떤 연맹체의 장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目支國의 王이 그렇고 辰王도 그렇고 準王도 마찬가지였습니다. 準王은 한 나라의 王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王, 그것도 辰韓지역이었다면 이미 三韓의 형성은 韓의 형성과 같은 겁니다. 韓은 곧 三韓입니다. 저는 출발도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李榮勳 : 혹시 咸舜燮 선생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咸舜燮 : 저는 아까 辰韓의 성립이 馬韓의 분리를 이끌어냈다고 하는데 문제는 辰韓이 언제 생겼냐는 거죠. 조금 뭔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식하고 있는 三韓은 이렇습니다. 동북아질서에 있어서 冊封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시점하고 그 전에 衛滿朝鮮과 韓의 네트워크가 있는 시점이 분명히 나누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三韓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그룹별로 冊封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적용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辰韓이든 馬韓이든 弁韓이든 하나의 연맹체적인 분류가 되는 것이지 선생님과 같은 견해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白承玉 : 아까 말씀드렸듯이 秦役을 피해서 왔다는 게 기원전 211년입니다. 그러면 辰韓이 그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211년은 準王 南來 시기인 기원전 194년보다도 소급되는 시기이고요. 근데 秦役을 피해서 왔다는 것을 衛滿朝鮮 멸망 이후에 온 사람에 초점을 맞추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秦役이라는 것을 중시하면 秦役은 기원전 211년입니다. 그러면 기원전 3세기 설은 충분히 설명이 되죠. 『三國史記』 초기 기사에 나오는 朝鮮遺民이라는 것을 자꾸 衛滿朝鮮에 초점을 맞추니까 기원전 108년에 자꾸 주목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 기사에 나오는 朝鮮遺民을 저는 秦役을 피해서 온 遺民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원전 211년이 되죠. 이상입니다.

李榮勳 :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李盛周 선생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李盛周 선생의 발표에 대해 영남문화재연구원의 朴升圭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朴升圭 : 李盛周 선생님의 발표는 茶戶里 1호묘의 부장 유물 중 붓과 削刀의 존재를 통해 한 문자의 직접 수용과 그에 따른 이념적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경제 및 사회체계를 통제하는 국의 통치 권력을 확장할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족장의 성격에 대한 비교 문화적 검토를 바탕으로 茶戶里 1호묘는 문명 지역과 직접적으로 상호 작용함과 동시에 원근의 주변지역 집단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입수한 유물들을 위세품으로 부장하는 族長墓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족장묘의 형성과 성장에 있어서 三韓 國의 통치자가 문자의 수용을 통한 이념적 변화를 선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경제 및 사회 체계를 재편하는 통치 권력을 확장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國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초기 국가의 성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三韓 國의 성립과 성장을 해석하는데 아주 유익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茶戶

리 1호묘의 부장유물 중 다양한 것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발표자께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가 다량 부장되어 있음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茶戶里 1호묘에서 출토된 붓과 削刀를 통해 문자의 수용, 나아가 한 문화의 수용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을 통치 권력의 확장으로까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통치 권력의 확장에 있어서 붓과 削刀를 통한 문자의 수용이 중요한 만큼 그에 못지않게 철제 무기와 철제 농기구의 다량 부장이란 양상이 말하는 鍛造철기문화의 수용에 대해서도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족장묘의 성격을 비교 문화적 검토를 통해 유형을 설정하고 있는데 茶戶里 1호묘에 대해서는 세 번째의 마지막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茶戶里 1호묘는 문명지역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함과 동시에 주변지역 집단 등과 네트워크를 통해 입수한 유물을 위세품으로 부장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 위세품 입수와 관련한 주변지역 집단과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弁辰韓 사회의 國의 성립기반에 대한 것인데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가르침을 받았으면 싶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넘어가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茶戶里 1호묘 부장 유물에 관한 國의 통치 권력을 다루셨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慶州 舍羅里 130호묘 부장유물을 통한 통치 권력에 대해서도 비교적 관점에서 견해를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盛周 : 네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가지 질문을 순서대로 답해드려야 하는데 마지막 네 번째는 첫 번째 질문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저의 주장이 붓과 削刀와 같은 유물에 초점을 맞추어 漢文化의 수용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철생산과 같은 요인은 경시하고 있지 않는가하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생산이라는 것이 당시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철기 생산을 정치적인 발전과 등식화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러면 철생산의 정치적 역할을 제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시대에서는 철생산이

라는 것이 부의 축적의 수단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철과 같은 주요한 소재 혹은 원료의 대량 생산이 결코 富의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논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자원과 노동력의 착취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철생산을 바로 富의 축적이라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철생산이 弁韓과 辰韓 사회의 성장에는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弁辰韓 지역과 한강유역은 철생산의 콘텍스트(context)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한강유역은 樂浪 사람들이 직접 경영하는 철생산 시스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弁辰韓지역에서는 그런 직접 경영의 증거를 찾을 수 없는데도 철생산이 빠르게 성장합니다. 이처럼 제련기술이 빠른 속도로 이 지역에 이전되면서 철생산도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뭔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樂浪의 기술자가 파견되어 최초로 제련기술이 도입되고 이후 이 지역 족장들이 노동력들을 동원해서 대량의 철생산을 하고 그것을 원거리 네트워크를 확장, 유지, 강화하는데 이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염두에 두고 저는 철생산이 정치적인 권력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茶戶里 族長의 성격에 대해 논하면서 물론 漢郡縣과의 교역에 중점을 두긴 했습니다만, 족장 권력의 성장에는 주변 지역집단들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과정, 그리고 철기의 생산을 통해서 다른 생산도구들을 독점하거나 관리해나가는 과정 등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茶戶里 1호분 족장은 전 단계와는 다르게 다양한 사회적인 전략을 쓰던 족장이었다고 저는 결론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板狀鐵斧 70매가 인상적으로 바닥에 깔려서 나오는 舍羅里 130호분의 경우, 역시 철생산을 통제했던 족장의 무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인데요, 세 번째 문제는 주변집단과의 네트워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지역 집단과의 네트워크라는 것은 근거리 族長들 사이의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것은 지식료 사회에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달라졌다면 그런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방식에서 무언가 발전이 있었겠지요. 청동기시대에 형성되었던 네트워크하고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라면 원거리 네트워크일 것입니다. 물론 茶戶里 1호분 이전에도 사회적인 네트워크들이 지리적으로 확장되면서 문명지역과 그 주변지역이 연결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없었습니다만 茶戶里 1호분 단계에 들어와 비로소 문명과 주변지역 사이에 뭔가 다이렉트로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가 관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지역 집단들 사이에 네트워크들은 아마 청동기시대부터 있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더 발전시켜 나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三韓 國의 성립, 國家나 邑落國家 등 수많은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이러한 정치체의 규모와 수준을 정의할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사 자체에서만 쓰는 용어나 관점이 있는가 하면 가급적 인류학의 일반명칭을 사용하자는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小國이며 邑落國家와 같은 그런 용어나 사회분류의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인류학적인 분류기준, 즉 일반적인 분류기준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國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인 분류기준인 國家(state)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한 三韓 ‘小國’을 지칭할 때 흔히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小國이 성립한 뒤에 이들이 통합되거나 위계화되어 형성된 초기국가라든가 고대국가는 일반적인 분류기준에서의 국가의 자격에 합당합니다. 초기국가 이전의 小國은 국가의 기준에 미달하는 정치체이며 족장들의 권력이 통합되는 범위나 그들이 컨트롤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權五榮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원후 3세기쯤이 되어야 중심고분군 같은 것들이 弁辰韓 지역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 걸 보면 小國의 통합이라는 것은 그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야 되겠는데 그 이전에는 그렇게 통합된 小國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집단들이 분립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 초기국가 이전까지 小國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국가가 아닌 族長社會의 성장과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小國들이 통합되어서 결국은 新羅 麻立干 시대의 초기 국가와 같은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李榮勳 : 제가 용어상의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의도하는 바는 알겠는데 ‘문명지역’이란 말이 적절한 표현인지요. 그러면 茶戶里지역은 야만지역이나 아니면 非문명지역이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漢문화의 수용이라는 말도 흔히 쓰는데 수용보다는 공유했다는 말이 어떨까 합니다. 한자의

수용이라는 말도 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자도 공유했다는 거죠. 동아시아 전체 문화를 형성한 것으로 본다면, 용어의 선택에 따라 사실 뉘앙스가 좀 달라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盛周 : 문명이란 한마디로 잘 조직화되고 복잡화된 시스템입니다. 역사학적으로 또는 인류학, 사회학적으로 항상 문명을 얘기할 때 잘 조직화된 그리고 복잡하고 거대한 시스템을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동아시아 일대에서 그와 같은 거대하고 복잡하고 조직화된 시스템을 갖춘 사회는 중원지역 즉 센트럴 플레인(Central Plain)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밖에 찾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당시 한반도는 표현의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야만지역이 맞지요. 당시 중국인들은 주변사회를 항상 차별화된 의식을 가지고 쳐다봤을 것이고 『三國志』 魏書 東夷傳에도 그러한 관념의 표현이 역력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李榮勳 : 王培新 선생께 질문 드립니다. 중원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른바 中國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오나요?

王培新 : 저 역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西周시대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榮勳 :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영남대학교의 鄭仁盛 선생의 발표에 대해 한국고고환경연구소의 金武重 선생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金武重 : 오늘 발표하신 鄭仁盛 선생님의 글은 이미 사실은 2002년도부터 조금씩 가능성에 대해 얘기해왔던 부분입니다. 계속 계재를 해왔고 또 직접 유물을 검토하고 그래서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연대 문제도 확실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인 것 같습니다. 논문이 아직 완성된 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토론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 완성을 하실 때 몇 가지 주문도 있고 부탁도 있고 저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茶戶里유적 출토 토기의 상한연대라고 했는데 사실 상한연대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제까지의 개념을 잘 정리하시면서 瓦質土器가 영남지방이나 낙동강유역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기원전 3세기 전으로 조금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전국시대 灰陶의 영향이라고 하시고 그 이후부터 瓦質土器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시고 있습니다만,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회도가 들어와서 서서히 몇 단계를 거쳐서 瓦質土器化 되는데 거기에 樂浪토기의 영향도 일부 들어간단 말씀이지요? 그런 과정들이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한 과정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요. 연대와 관련해서, 특히 茶戶里 1호분의 연대가 어제 金旼希 선생님과 金一圭 선생님, 그리고 辛勇旻 선생님의 얘기가 다 달랐거든요. 그렇다면 鄭仁盛 선생님의 연대관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래야 茶戶里의 토기 편년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전국시대 灰陶 문제를 갖다가 瓦質土器의 계보로 삼다 보니까 요동반도 지역의 토기와 연결하여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가능성은 없는 것이냐는 차원입니다. 혹시 銅覆이나 鐵覆과 연관될 수는 없는가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을 듣고 싶고요. 세 번째 한반도 남부지방 아니면 일본열도까지의 국제 교역, 교류 관계를 설명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서북지방에 소지한 樂浪郡을 중심으로 설명을 많이 했죠. 그런데 오늘 발표를 보면 요동반도 산 유물의 예를 들어서 戰國시대까지 시기를 올려보고 범위도 넓혀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戰國시대에서 漢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들에서 어떠한 물질자료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자께서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기원전 3세기대의 요동반도, 서북지방, 낙동강유역, 물론 그 중간에 호남지방이라든가 연안해를 따라가는 중간 거점도 있었을 것이고 일본열도 중에서는 특히 沖繩(오키나와)까지 이어지는 교통망, 교역망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주체를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는 거죠. 물론 발표하실 때 약간 말씀은 하셨는데 소상히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러한 기원전 3세기대 형성된 국제 교역망이 과연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었느냐 아니면 어떤 변화를 거쳐 갔느냐 나름대로 腹案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鄭仁盛 : 토론문을 보니까 약간은 소략해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연대 문제를 포함해서 정곡을 찌르시니까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일단 말씀드리기 쉬운 것부터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반구연옹이 요동지역에 있는 토기와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鐵覆, 예를 들어서 舍羅里 130호,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형태적으로 닮아 있습니다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쓴 이유는 이렇습니다. 朴淳發 선생님께서 예전에 『百濟研究』에 한반도 중남부지역에 있는 토기들이 樂浪土器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전개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토기 하나가 外反口緣壺라고 했습니다. 朴淳發 선생님께서는 평탄면을 가지는 外反口緣壺가 樂浪 花盆形土器의 영향이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樂浪 花盆形土器는 사실 원형에 마포를 씌운 다음에 거기에 점토띠를 붙여가지고 타날로 두드린 다음에 기와 만들듯이 다시 뒤집어가지고 약간의 회전을 이용하면서 구연을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소위 남부지역 특히 八達洞에서 좋은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자료들은 그런 공정을 거치지 않거든요. 바닥에서부터 만들어 올라와서 구연부를 조정한 다음에 저부만 손질하는 것이라서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 舍羅里 130호에서 나온 것들 중 비슷한 형태가 있습니다만, 시기가 늦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八達洞이 훨씬 시기가 빠르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른 鐵覆이나 銅覆을 굳이 樂浪으로부터 이입되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樂浪을 매개로 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만 연대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요소들을 樂浪과 무리하게 연관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원전 3세기까지 올라간다고 한 것은 낙동강유역권이 동북아시아를 연결하는 국제 교역망에 편입되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중국 내지는 일본 沖繩(오키나와)까지 연결되는 廣域의 교역망에 편입된 것이 기원전 3세기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겠다고 한 것이지 瓦質土器의 기원이 기원전 3세기까지 올라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樂浪郡이 폐지된 뒤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분명히 교류가 있었다고 봅니다. 樂浪과 한반도 남부지방을 둘러싼 교류사에 대해서는 저도 예전에 분기를 나눠가지고 1단계에는 대개 서남부지역에서 나오는 鑄造鐵斧가 중국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 쪽 나왔습니다만, 영남지방으로 한정하면 북쪽지역에 있는 집단이 對中國 교류 2단계에서 우세하고 그 다음 시기가 되면 남쪽지역에서 주로 중국계 유물이 출토되는 그런 양상들은 보입니다만, 이게 樂浪郡의 정세 변화하고 교역망의 변

동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만큼 충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瓦質土器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樂浪 이전에 뭔가 있었다는 것들이 인정이 되나 중간에 樂浪토기의 요소도 있지 않은가라고 질문하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예, 부족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분명히 다른 학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어깨부에 평행타날을 한다거나 두드려서 문양을 지우는 그런 기법들이 보이는데 이게 권역 내에서 아주 시기가 빠른 타날문단경호가 아니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시점에 나온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樂浪계 요소가 추가되는 시점을 설명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 단순히 타날이라는 기법, 還元焰으로 소성되는 것 말고 다른 속성을 얘기해야만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보인다는 거죠. 茶戶里 출토품을 보면 물론 상식적으로 樂浪하고 관계를 가지죠. 가지지만 樂浪에 바로 모든 초점을 맞춰버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고학적인 유물을 가지고 소위 樂浪과 일본을 연결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은 비교적 오래되어서 鳥居龍藏(도리이 류조)이 『有史以前の日本』이란 책에서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일본에서 보이는 소위 물질문화의 큰 변화가 한반도에서 건너온 게 아니고 樂浪이나 帶方을 통해서 건너왔다고 보고 결국 그것은 樂浪, 帶方지역의 독특한 것이 아니라 산동반도를 매개로 해서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일본에서 彌生時代 편년을 하면서 중기를 樂浪郡의 설치라고 보고, 최근에 많은 연구자가 漢鏡 편년에 대해 岡村秀典(오카무라 히데노리) 선생님의 이야기를 인용하지만 岡村秀典 선생의 漢鏡 편년에도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일본에 들어온 소위 중국계 유물은 樂浪郡 정도가 설치가 되어야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지 그 이전에 어떻게 들어오겠느냐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고 나면 일본 北部九州에서 나오는 戰國系 청동기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것이죠. 그런 것들도 樂浪이 사실은 전 단계 유물들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북부 규슈로 준 것이라고 궁색한 해석을 만들어 내야 되는가라는 점에서는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새로운 연대에 대해서 樂浪郡 설치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설명을 해 나가면 지금과는 다른 다양한 의견들이 새로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80년대 申敬澈, 崔鍾圭 선생님이 촉발하신 瓦質土器와

관련된 많은 연구 성과와 토론들을 보면서 저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만, 그러한 연구업적을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대에 대한 패러다임을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합니다.

李榮勳 : 茶戶里 1호묘의 연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鄭仁盛 : 茶戶里 1호묘 연대는 기원전 1세기 전반대 정도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榮勳 : 방청석의 尹龍九 선생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尹龍九 : 오늘 고고학하시는 선생님들 말씀을 듣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만, 고고학적인 견해를 갖고 바로 문헌에 대비해서 말씀드리긴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여간에 그동안 중국 주변, 한반도, 만주, 일본열도를 포함한 지역의 교류관계를 樂浪을 축으로 이야기한 건 사실이고 현실적으로도 그에 대한 자료가 많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즉, 중국과 중국 주변지역의 교섭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이 기원전 1세기 이전으로 소급되는 것이 많지 않으니까 그림을 그리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교류관계가 실제로 분명치 않지만 나타날 수 있는 계기는 역시 戰國시대 연나라가 요서, 요동지역으로 진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쇄적인 문화 파동이 있기 때문에 기원전 3세기 이후 중국 동북지역과 일본열도까지 포함하는 교류의 형태를 분명히 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茶戶里 1호묘의 연대를 기원전 1세기 전반대라고 하면 거기에서 나온 樂浪郡하고 중국 교섭의 형태가 육로를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 해로를 통해 형성된 교류의 산물인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鄭仁盛 : 전반기 유물들이 주로 빨리 나오는 데가 내륙지방이니까 그러면 땅으로 들어왔느냐 배를 타고 왔느냐는 그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영남 북부지역에서 보이는 그런 교역망, 이런 것들은 육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울산 내지는 포항도 가까이 있습니다만 蔚山에서 慶州로 이어지는 구간, 그리고 慶州에서 大邱로,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이런 해로에서 연장되는 라인이라고 꼭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 육로는 없었느냐 하실 때 이 당시에 육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부담이 컸던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중간 중간 지역을 연결해주는 지점에서 관련 고고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저는 기본적으로 해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榮勳 : 鄭仁盛 선생 발표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王培新 선생께서 자료집에 실려 있는 고구려 묘제에 대한 부분은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구두 발표 내용에 대해서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용인대학교의 金吉植 교수께서 지정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金吉植 : 오늘은 실제 발표 요지문하고 조금 다르게 발표하셔서 제가 준비한 토론 요지문 대신에 왕선생님께서 파워포인트로 발표하신 내용에 한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樂浪 무덤의 변화과정과 그 편년자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발표 내용 중에 樂浪 무덤의 변화과정을 대개 6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6기로 나누는 내용들은 대체로 묘제의 변화양상과 출토되는 여러 漢式유물의 내용을 가지고 편년을 하신 것입니다만, 이 편년 내용들은 대체로 지금 樂浪 고분을 연구하시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6기의 분기 설정에 대한 변화과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구체적인 편년을 한 근거내용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편년 근거 자료로 삼은 것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樂浪문화의 구성요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 樂浪문화의 속성을 말씀하시면서, 樂浪문화의 형성에 대하여 기존의 古朝鮮 토착문화가 중원의 漢式문화와 융합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樂浪 연구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樂浪土城을 비롯한 서북한지역의 土城에 대한 여러 내용을 소개하시면서도, 그 중에 특히 漢式요소만을 주로 강조하다보니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古朝鮮 재지요소에 중원의 漢式요소들이 융합되어 가는 것이 樂浪문화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착문화와의 융합과정에 대한 설명이 되지 못하고 마치 樂浪文化는 中原文化의 일방적인 이식이라

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왕에 선생님의 발표문이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茶戶里유적의 성격이나 茶戶里유적을 중심으로 한 辰弁韓과 樂浪, 중국과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과는 다소 동떨어진 것이므로 발표 내용에는 없는 소박한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제 茶戶里 특별전을 관람하시고 오늘 발표를 하시면서 茶戶里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를 보니까 그것들이 그야말로 樂浪土器의 영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발표하신 鄭仁盛 선생님의 발표 내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선생님께서 토기들을 관찰한 내용 중에 진정한 樂浪토기의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좀 세부적인 내용입니다만, 한 가지 제가 조금 유감일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발표하신 자료들 중에 최근에 조사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樂浪 관련 자료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 있으려니 내심 기대했는데 역시 기존에 국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 중심으로 말씀을 하셔서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만, 혹시 가능하시다면 최근 북한에서 조사된 새로운 樂浪 자료들에 대한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기도 하고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발표자 분, 토론자 분들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樂浪문화가 한반도 原三國시대의 三韓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면 茶戶里 1호묘 단계, 그러니까 기원전 1세기 단계 또는 그 이전 단계의 서북한지역의 문화 내용, 즉 우리가 흔히 단장목곽묘 단계라고 부르는 시기에 나오는 花盆形土器, 배부른단지 그리고 일련의 청동 거마구들, 세형동검 등 이외에 혹시 또 우리 남부지역의 原三國시대 유물과 관련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문화내용들이나 유물양상들이 서북한지역의 무덤에서 확인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王培新 : 첫 번째 문제에서 제가 樂浪문화 특히 樂浪무덤을 6기로 나눈 것에 대해 어떠한 근거로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6기로 나누게 된 것은 중국에서 흔히 하고 있는 고고유형학방법론에 의거한 것임

니다. 우선 무덤 구조를 통해서 이러한 분기, 편년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출토된 유물 중에서 토기의 기형 변화와 토기의 쇠퇴화, 조합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러한 편년안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토기에 대해서는 5개의 조, 세트로 나누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고고학적인 유형학 방법론만 가지고서 분기를 설정하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출토 유물 중에서 동경, 그리고 칠기를 주요한 근거로 삼고 주된 토기의 조합 속에 이것들을 모아서 이런 분기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제6기의 단계에 있어서는 소위 얘기하는 주된 토기들이 많이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기의 조합에서는 5개의 단계로만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6기는 무시하고요, 나머지 남게 되는 5개의 조합, 제5기를 통해 각 기마다 무덤의 구조, 매장방식, 토기조합, 토기의 기형, 동경이나 무기의 변화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樂浪文化 속에서 보이는 토착문화와 漢문화 간의 융합관계입니다. 樂浪郡이 설치되기 이전, 제가 분기에서 나눈 제6기 가운데 제1기와 제2기에는 토착적인 문화요소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3기, 즉 기원후 2세기 이후부터는 토착적인 문화요소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원후 2세기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토착적인 문화요소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樂浪郡이 설치된 초기 다시 말씀드리면 목관묘의 초기 단계에는 중국 漢문화적인 요소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樂浪文化와 동시기 중원문화 간에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지만 차이점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 내지에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漢代라고 하지만 지역적인 특색을 아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본 변방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樂浪郡의 문화에 있어서도 樂浪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디서 그런 걸 찾을 수 있냐면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樂浪무덤에서 출토되는 토기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는 겁니다. 樂浪무덤에서는 陶質의 明器를 기본적으로 많이 매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樂浪무덤에 있어서 목관묘를 사용하는 시기가 중국 내지에 비해서 훨씬 더 길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茶戶里 토기와 樂浪토기에 관한 비교, 교류관계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茶戶里 토기에 관해서

는 어제 한국에 와서 처음 실제 유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요지문에 있는 많은 분들의 茶戶里 관련 토기 내용과 어제 제가 전시실에서 본 내용을 종합해서,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瓦質土器와 관련된 초보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茶戶里 瓦質土器의 태도, 제작 방식을 통해서 초보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漢代토기와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樂浪郡은 漢代 한반도 서북부에 설치된 기구로써 하나의 거점지역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토기 역시 漢代 토기가 樂浪郡을 통해서 한반도 남부로 전래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제 제가 본 茶戶里 유물 중에서 회색 단경호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樂浪 제1기와 樂浪 제2기의 화분토기와 유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는 樂浪과 관련되는 새로운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보셨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중국도 지금 북한과는 학술적인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자료 역시 北朝鮮에서 발표한 논문이 전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新資料에 대해서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보다 빨리 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金吉植 : 제가 질문하고자 의도했던 답변들이 좀 나온 것 같기도 해서 그 이상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중, 樂浪土器와 瓦質土器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앞에서 鄭仁盛 선생님 발표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그런대로 이해하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기왕에 이번 茶戶里 학술 심포지엄에 오셨으니까, 중국에 계시면서 앞으로 樂浪자료에 대하여 현지를 답사하거나 실물자료를 접할 수 없는 저희들보다 실물을 접할 수 있을 기회가 많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유물도 많이 보시고, 유물 관찰도 잘 하셔서 어제와 오늘 논의되고 있는 樂浪과 三韓 간의 교류관계, 樂浪이나 漢式土器와 한반도 남부지방의 原三國시대 瓦質土器와의 관계 등과 같은 문제를 포함해서 중국 쪽 입장에서 해명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李榮勳 : 茶戶里 1호묘의 이런 통나무 목관과 중국 사천성 獨木棺들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지 王선생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王培新 : 제가 보기에는 관계가 그렇게 밀접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李榮勳 : 茶戶里 1호묘에서도 漢鏡이 나와서, 洛陽 燒溝漢墓의 동경 편년안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도 이 편년안을 이용하고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1호묘의 星雲文鏡의 연대를 王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王培新 : 그 이론은 아직까지 기본적으로 맞는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星雲文鏡은 중국에서 漢武帝와 昭帝代 가장 유행한 것입니다. 그 연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원전 140년에서 기원전 75년경 유행한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榮勳 : 또 하나 질문으로, 아까 목곽묘의 전 단계를 토광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토광묘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王培新 : 토광묘라고 하는 것은 목관이 있는 그런 무덤입니다. 많은 무덤에 있어서 목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없지만요. 그렇지만 무덤에서 목관을 사용한 흔적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토광묘라는 개념은 목관을 사용한 무덤입니다.

李榮勳 : 그럼 목관묘라고 불러도 되나요?

王培新 :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李榮勳 : 鄭仁盛 선생님 樂浪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鄭仁盛 : 저도 王培新 선생님이 樂浪토기와 三韓土器의 관련에 대해서 분명하게 관계가 있다고 단언을 하시기에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하고 긴장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런 구체적인 사실이 없다고 하시니 안심이 됩니다. 사실 일본의 高久健二 (다카쿠 겐지) 선생님께서도 이런 편년을 하셨는데 그것과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선생님께서 시기를 늦추시는데 반해 최근 高久健二 선생의 편년을 보면 전실묘의 도입이 기원후 1세기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새로운 이야기들을 파악하고 계신지 알고 싶고 또 하나, 이른 시기 무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戰國系 내지는 秦代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土城洞 486호 이런 것들은 선생님의 1, 2기 편년하

고는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거죠. 高久健二 선생님도 똑같고 王培新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樂浪무덤을 전부 다 한 武帝가 설치한 樂浪郡의 설치 시점에서 끊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그보다 시기가 빠른 土城洞 486호 등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토기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하신 청동기도 마찬가지고 樂浪郡이 설치되면서 漢에서 새롭게 이식된 문화가 아니란 말이죠. 樂浪土器는 곧 漢式土器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중원에서의 漢系토기 이런 것들은 樂浪토기와는 다릅니다. 첫째 기형이 다르고 또 하나 비슷한 기형인 경우에도 漢의 중원에서 나온 토기들은 前漢代의 경우 토기를 만든 다음에 뒤집어서 구연을 고정시킨 다음에 저부를 회전깎기 합니다. 이러한 회전깎기는 樂浪지역에서 전혀 채용이 안 되는 속성이고 아까 쪽 말씀하신 花盆形土器, 타날문단경호 이러한 토기들은 전형적인 漢代의 중국토기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李榮勳 : 鄭仁盛 선생의 이야기는 질문이 아니라 코멘트라고 보시고 통역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앞으로 吉林大學에 발굴 자료를 많이 보내드려서 한국고고학에 대한 정보가 많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토론으로 넘어갑니다. 井上主稅(이노우에 치카라) 선생의 발표에 대해 경주문화재연구소 李柱憲 실장께서 토론해주시겠습니다.

李柱憲 : 처음 발표자의 글을 보고 조금 의아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茶戶里유적에서 倭系에 대한 얘기는 거의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특히 1호분에서 나온 中細形銅矛의 해석을 일본 倭系유물로 파악하고 또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須玖(스구)Ⅱ식 유개대부호를 소개하면서 일본과의 깊은 관계를 언급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국 井上主稅 선생님께서는 中細形銅矛의 용법이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형식상에 있어서 鍔部 하단부의 절대가 나팔형을 띠는 점이 한국에서 출토된 銅矛 중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倭系유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선학들의 연구를 보게 되면 순수하게 倭系유물로만 보지 않고 한반도와 양 지역에서 제작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의견도 있고 한반도 영남지역의 것으로 생각하는 의견들도 최근까지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한국의 연구자들은 彌生 중기 말 정도 되어야, 즉 中

廣形銅矛의 단계가 되어야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무기형 제기가 한반도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피력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리고 또 발표자께서 비교자료로 써 예로 든 것이 永川 龍田里 자료입니다. 최근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출토된 中細形銅矛 역시 발표자는 倭系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발굴을 한 보고자들은 유물의 형태만으로 그것을 倭系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이미 大邱 新川洞이라든지 弁辰韓지역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강조해서 이 단계에서는 제기로 변질된 銅矛와 같은 위신재의 교역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상적인 彌生土器에만 한정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漢鏡이라든가 五銖錢, 弩機 등 漢系の 유물들을 樂浪郡과 弁辰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보이는 예로 들어 茶戶里유적과 龍田里유적으로 대표되는 弁辰韓의 상위계층은 아마 樂浪郡의 성립을 계기로 왜와의 교류보다는 漢과의 교섭에 역량을 집중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론자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茶戶里 1호묘에서 출토된 中細形銅矛의 부장방식이었습니다. 中細形銅矛는 腰坑에 부장되어 있었는데, 이런 방식은 전 단계인 大邱 八達洞 90호분에서 출토된 細形銅矛와 같이 腰坑 내에 부장되는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에서와 같이 묘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수습 점씩 일괄 매납되는 부장양상과 구별을 지어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須玖(스구)Ⅱ식 유개대부호의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적색의 마연이 되어 있어 제사적인 성격이 강한 토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須玖(스구)Ⅱ식 토기는 남해안지역에 넓게 분포하여 출토되고 있는데 특히 金海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적색의 단도마연으로 된 그런 제사적인 토기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유개대부호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井上主税 :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茶戶里 1호묘 출토 中細形銅矛의 제작지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한반도와 일본 열도 양방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견해, 小田富士雄(오다 후지오) 선생님 견해, 그리고 武末純一 선생님 같이 『한

일 교섭의 고고학』彌生時代 편에서 쓰신 바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는 小田 富士雄 선생님 견해로 하자면 中細形 A류에 대해서, 예를 들어 立岩(다테이 와) 10호 옹관묘 그리고 安溪里 그리고 九政洞 등 양국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九政洞하고 立岩 것하고는 너무나 흡사하니까 양국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茶戶里 1호묘 출토 中細形銅矛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다, 일단은 中廣形에 대해서는 일본 제작으로 할 수 있는데, 中細形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단정하기가 어렵다, 유보 하자고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남지역의 경우 李清圭 선생님의 견해를 보면 중형으로 해서 E1형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茶戶里 1호묘와 九政洞, 安溪里 등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일본의 형식 분류를 보면 E1 형식으로도 분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中細形 A류에 대해서는 양국에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데 B류도 마찬가지로 C류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용범이 출토되었지만 그것만으로 단정하긴 어려운 것은 알고 있고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茶戶里 1호묘 출토 中細形銅矛와 龍田里에서 나오는 中細形銅矛가 일본 것이라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이제까지 중국과 북규슈 혹은 중국과 한반도 남부의 관계만 봤던 것을 일본과 한반도 남부 관계는 신석기시대 이래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3자간의 관계를 봐야 되지 않을까 가설적인 얘기고요. 두 번째 부장방식에 대해서는 매납품으로 되면 물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데 그래도 북부 규슈의 왕묘라든가 일급 수장묘에서는 여전히 무기형 제기, 청동기를 부장품으로 취급했으니까 茶戶里 1호묘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출토지를 확인하다보니까 수습품이라고 들었습니다. 茶戶里 분묘유적이니까 취락지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취락지가 없다고 한다면 金海 池內洞이라든가 목관묘나 옹관묘의 부장품으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증거는 倭人이 아니고 한반도 재지인이 사용한 부장토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榮勳 : 中細形銅矛의 제작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武末純一(다케

스에 준이치) 선생님 한 말씀해주실까요?

武末純一 : 저는 아직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관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銚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內型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靑銅矛를 만들려면 청동주조물이 들어가는 흙이 생깁니다. 그 흔적을 자세히 관찰하면 銅矛 銚部에 남아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일본에서 만들었던 細形銅矛 그 단계부터 砂造입니다. 한국에서는 동아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銅矛가 있는데 中細形銅矛보다 올라가고 그것은 泥造입니다. 지금 釜山博物館에 있는 傳 金海라는 것은 정확하게 한국에서 만들어진 異形銅矛인데 그것을 관찰하면 역시 泥造입니다. 이들은 中細形銅矛보다 늦은 것입니다. 茶戶里 中細形銅矛를 어제 보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泥造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자세히 관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九政洞에서는 砂造인 銅矛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倭系인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李榮勳 : 고맙습니다. 武末純一 선생의 발표에 대해, 釜山大學校의 申敬澈 선생께서 지정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申敬澈 : 우선 저희들한테 익숙한 용어가 농촌, 어촌, 산촌인데 해촌을 별도로 설정하여 해촌으로 설명한 것은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로만 하면 어촌인데 해상 교역 활동을 포함한 것을 해촌이라고 설명한 것은 매우 신선했고, 다음에 이 용어가 고고학에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 관계의 확인인데 아까 武末純一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물어봐서 확인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靑島의 대 일본 교류가, 彌生 중기 후반인 須玖(스구)Ⅱ식이 대량으로 나올 때, 武末純一 선생님 글에는 中部・東部九州나 東瀬戸內(히가시세토우치)에 확대된다고 했는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대개 北部九州 彌生土器밖에 없어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해서, 武末純一 선생님에게 확인해본 것입니다. 확인 결과 靑島 출토의 東瀬戸內(히가시세토우치)의 彌生토기는 단 한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부, 동부규슈의 彌生토기도 매우 소수여서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양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대답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

실 관계를 확인했으니까요. 단, 이 정도 나온 것을 가지고 일본열도에 대한 교류가 확대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武末純一 선생님의 논문이요, 靑島에서는 須玖(스구)Ⅰ식, 須玖(스구)Ⅱ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북부지역 彌生 후기 전반의 彌生토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비해서 낙동강下流域 釜山·金海는 須玖(스구)Ⅱ식은 나오긴 나오지만, 지속적이 아니라 매우 단속적이라는 점입니다. 양도 적고요.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낙동강下流域 같으면 빨리 瓦質土器로 전환된다고 崔盛洛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만, 동감입니다. 靑島에서 三角形粘土帶土器가 주로 출토된다고 하여, 靑島를 茶戶里보다도 무조건 빠르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靑島는 三角形粘土帶土器를 표지로 하는 무문토기가 늦게까지 존속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은 茶戶里를 포함한 낙동강下流域까지를 武末純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해촌 교류망에 넣어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靑島와 茶戶里를 포함한 낙동강하류역이 같은 해촌 교류망에 있었다면 靑島와 낙동강하류 간에는 뭔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다면 靑島에서도 낙동강하류역과 마찬가지로 須玖(스구)Ⅱ 정도의 단계에서는 瓦質土器化가 진행되는 추세를 보인다는지 武末純一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靑島 2기에 瓦質土器가 다량으로 출토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茶戶里를 포함한 낙동강하류는 해촌 교류망이 아닌, 별도의 교류망, 교역망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만, 樂浪土器의 존재는 北部九州를 포함해 靑島에 樂浪人이 거주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해촌 교류망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영남에서는 靑島를 제외한다면, 사실은 樂浪土器의 출토는 全無합니다. 이 사실도 다호리유적을 포함한 낙동강하류역은 해촌 교류망이 아니라 별도의 틀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임을 나타내주는 것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武末純一 선생은 壹岐(이키)의 原の辻(하루노츠지)유적의 瓦質土器와 樂浪土器의 연대는 대개 須玖(스구)Ⅱ기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영남의 瓦質土器의 출현시점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樂浪 설치 후 즉시 낙랑과 한반도 남부, 일본열도의 북부규슈 간에 교류망이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일이 경과한 후,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須玖

(스구)Ⅱ는 일본 열도에서 前漢鏡이 출토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前漢鏡 연대를 생각한다면 교류망의 형성은 저는 기원전 1세기 후반 또는 기원전 1세기 중엽 정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武末純一 선생님에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무렵에 한반도 남부, 樂浪, 北部九州의 세 지역이 갑자기 그것도 동시에 교류망이 형성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하는 점입니다. 특별히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은 鄭仁盛 선생님의 발표문도 관련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鄭仁盛 선생님의 戰國系 요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衛滿朝鮮과의 교역에 의해 들어왔느냐 나중에 大同江 樂浪시대까지 잠재되어 있었던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혹시 나중에 저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간단하게 코멘트할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武末純一 : 먼저 저의 도면 13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저는 극히 소수라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洛東江下流域에 해촌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는 있다 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申敬澈 선생님 지금 없다 하시니까.

申敬澈 : 누락되었는데 낙동강하류에 해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瓦質土器로 靑島보다 빠르게 진전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靑島는, 아까 崔盛洛 선생님도 얘기했지만은, 三角形粘土帶土器가 굉장히 늦게까지 존속하는 郡谷里, 新昌洞지역하고 공통된다는 거죠. 오히려 해촌은 그쪽으로 연결되지, 낙동강하류역은 중추부로써 별도의 틀로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武末純一 : 알겠습니다. 對馬島하고 이 영남지방하고 자주 교류하고 있었다는 게 기초입니다. 그 위에 해촌 세계의 각각 문화권이 있지만 樂浪토기를 통해 볼 때 하나의 세계가 그 위에 생겼다, 그 다음에 더 위에 樂浪, 三韓하고 교섭 같은 외교관계를 맺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에서도 후기가 되면 倭系 청동기가 많이 나오죠. 中廣形銅矛, 廣形銅矛 같어요. 여기에서만 들어졌던 늦은 단계의 소형 倣製鏡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나가 하면은 역시 이러한 교역망을 가지고서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역 정권이 시켜서 아

마 교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태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樂浪 商인들이 교역망의 형성에 관여하고 있지 않았나 싶은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鄭仁盛 선생님이 직접 대답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만, 저는 문제를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요동반도계 토기는 靺島에서 반입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彌生 전반기에 沖繩(오키나와)까지를 포함한 요동반도에서 교류망의 형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영남지방에서 瓦質土器의 시기가 올라가는지, 그런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申敬澈 : 알겠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이 戰國系토기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해안을 포함한 영남지역에서 발견되는 戰國系토기가 瓦質토기의 등장보다 앞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입니다. 즉 戰國系토기에 이어 순차 瓦質토기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戰國系토기는 瓦質토기와 동반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조사결과가 잘 말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여튼 이 점은 나중에 저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鄭仁盛 선생님이 사용한 자료를 저도 똑같이 사용해서 말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戰國系토기가 瓦質토기보다 출현연대가 올라가는지. 그런데 武末純一 선생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前期 瓦質土器 단계의 중추부라면 大邱, 慶州, 낙동강하류역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시겠지요. 瓦質토기 단계 때, 靺島가 교류의 거점이라는 데 교류의 거점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는 뜻입니다. 교류의 거점이라면 靺島는 이러한 중추부와도 긴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토기로 보아 그러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瓦質토기를 기준으로 할 때 靺島와 중추부의 한 곳인 茶戶里유적을 포함한 낙동강하류역과는 오히려 단절상태가 하는 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초점입니다. 한마디로 靺島는 三角形粘土帶土器를 표지로 하는 무문토기가 늦게까지 존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茶戶里를 포함한 낙동강하류형(型)이 아니라, 오히려 榮山江유역의 新昌洞형과 郡谷里형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武末純一 : 낙동강하류의 바닷가에 있는 취락이 실제 조사된 후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申敬澈 : 그런데 靑島에서는 前期 瓦質土器는 없고 출토되지 않는다고 단정해도 좋습니다.

武末純一 : 그것은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靑島는 영남 중심지의 辰弁韓에 속한다기보다는 호남지역의 문화권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재인식토록 하겠습니다. 또 거점이 아니라 점이지역입니다. 단, 문화권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위에 樂浪의 교류망이 형성되었다고 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金海貝塚에서 출토된 貨泉이나 金海지역의 중국계 문물을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李榮勳 : 申敬澈 선생님, 鄭仁盛 선생 발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시지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요.

申敬澈 : 아직 저는 이번의 鄭仁盛 선생님의 문장을 못 읽어봤지만, 발표는 시종일관 경청하였기 때문에 鄭仁盛 선생이 말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鄭仁盛 선생은 왜 철기는 樂浪郡 설치를 초월하여 그 앞 시기까지 소급하여 올라가는데 토기는 왜 올라가면 안 되느냐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철기의 출현과 瓦質토기의 출현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鄭仁盛 선생이 유력한 근거로 여기는 자료인 星州 禮山里 3지구 3호 목관묘 출토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여기 주머니호가 초점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제 토론에서 이 주머니호와 유사한 朝陽洞 5호분의 것을 무문토기로 봐야 되느냐 瓦質토기로 봐야 되느냐 하는 이런 논의가 있었습시다만, 뜻밖에 이런 주머니호를 무문토기로 간단히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놀랐습니다. 즉 무문토기질이라고 해서 무문토기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점에도 오늘 발표의 鄭仁盛 선생님이 무문토기와 瓦質토기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찬성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瓦質토기의 개념의 개념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瓦質토기란 한마디로 한반도남부의 무문토기의 기반 위에 樂浪토기의 요소가 가미되어 생성된 영남지역 특유의 제3의 토기입니다. 오늘 틈을 이용하여 茶戶里유적 특별전시를 유심히 견학하였습시다만, 이 전시에서 茶戶里의 무문토기와 瓦質토기를 구분하여 전시해 놓았는데, 저로서는 수궁하기 어려웠습니다. 한마디로 주머니호가 비록 무문토

기질이라 해도 무문토기로 간주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즉 저는 주머니호의 출현을 瓦質토기의 출현의 징조로 생각합니다. 어제의 종합토론에서 李在賢 선생도 지적이 있었지만, 金炫希 선생의 I 단계와 II 단계는 선후관계가 아니라, 동일단계라는 뜻입니다. 물론 禮山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鄭仁盛 선생이 瓦質토기의 연대를 대폭 소급시키려는 유력 자료의 하나로 達川유적 5호의 자료를 들었습니다만, 여기 출토 三角形粘土帶土器는 그렇게 빨리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三角形粘土帶土器의 연대폭은 꽤 있는데, 達川 5호의 三角形粘土帶土器는 瓦質토기 중추부지역에서의 최후의 三角形粘土帶土器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즉 茶戶里와 마찬가지로 瓦質토기 출현 무렵에 유존하고 있었던 三角形粘土帶土器이지요. 다음에 靑島유적 출토의 戰國系토기의 문제인데, 현재까지의 추세로 보아서는 연대적으로 須玖(스구)II와 연관될 가능성이 극히 높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須玖(스구)II는 북부 규슈에서 前漢鏡이 출토하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樂浪, 한반도 남부, 북부 규슈의 교류망이 형성되는 시기이지요. 따라서 이런 戰國系토기는 오늘 鄭仁盛 선생의 발표처럼, 瓦質토기 출현의 전단계에 요동반도에서 沖繩(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교류망이 형성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요동반도에서 독자적으로 반입된 것이 아니라, 須玖(스구)II식 단계에 형성된 교류망을 통하여 반입된 樂浪문물에 묻혀왔을 가능성이 큼니다. 이것은 일본열도 출토의 戰國系토기, 樂浪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瓦質토기의 출현, 靑島유적의 戰國系토기, 須玖(스구)II의 출현 시기는 각각이 아니라, 모두 동시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須玖(스구)II 무렵에 북부 규슈에 다수 유입되고 있는 前漢鏡과 茶戶里 1호묘 출토 등의 前漢鏡을 생각해 볼 때, 기원전 1세기 중엽을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한반도 남부와 북부 규슈의 고고자료를 볼 때, 鄭仁盛 선생이 생각하는 것처럼 瓦質토기의 출현이 기원전 2세기까지 소급한다든지, 戰國系토기는 이보다 더 이르다는 근거가 현재로서는 全無하다는 것이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골자입니다.

李榮勳 : 예 고맙습니다.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武末純一 선생님께 간단한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蔚山發展研究院의 李在賢 선생님이신데요. 발표 중에 靑島 B 지구 가-245호에서 나온 벼루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벼루로 보는 근거가 뭐냐

는 질문입니다. 질문자도 벼루가 아닐까 생각해서 관찰해봤는데 숫돌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武末純一 : 제가 勒島에서 벼루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勒島에서 나오는 숫돌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얇은 숫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질이 樂浪에서 나오는 벼루하고 똑같은 석질입니다. 그리고 만드는 기법이 일단 찰절했다가 부러뜨리는 식으로 벼루하고 같은 기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까만 색깔이 남아있는데 분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벼루로 쓰고 있다가 숫돌로 사용했을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李榮勳 : 숫돌과 벼루는 구별하기 어려울지 모르죠. 李在賢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李在賢 : 제가 樂浪 숫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부분을 발굴했었는데 細形銅劍하고 板狀鐵斧하고 여러 유물들이 많이 나온 주거지입니다. 그런데 불탄 주거지였기 때문에 검은 게 묻어 있는 것은 불탄 주거지의 재가 묻어 있어서 그랬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는데 종방향으로만 마연 흔적이 있었습니다. 형태적으로 보면 숫돌 같은데 숫돌과 벼루를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몰라서 질문 드렸습니다.

李榮勳 : 예 고맙습니다. 종방향으로 흔적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목포 대학교 崔盛洛 선생의 발표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의 金正完 유물관리부장께서 지정토론하시겠습니다.

金正完 : 영남지역의 철기문화의 전파 경로라든지 사회상 등에 대한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동아시아에서의 茶戶里유적에 대해서는 본론 테마가 동아시아 茶戶里이라고 되어있습시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발표 내용 중 궁금한 것과 제가 본 것과 달리 보이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기구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자리가 시기구분에 대한 자리는 아니지만 선생님께서는 본문에서 가야의 시작을 기원후 1, 2세기대라고 하고 그 이전을 弁辰韓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가야와 弁辰韓

의 차이, 그리고 그 획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황해도 明沙里 疊口式甕棺墓의 연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동 토기의 연대를 기원전 2세기경으로 보시고 疊口式甕棺墓로써는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토기가 2년 전 ‘平壤의 국보들’이라고 해서 특별전시로 중앙박물관, 대구박물관에서 전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실견한 바로는 명사리 옹관은 斷面三角形粘土帶土器 중에서도 퇴화형식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硬質無文土器에 속하는 것으로써, 기원전 2세기로 올려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보충으로 설명해주실 부분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해묵은 이야기이기도 하겠습니까만, 泗川 勒島 斷面三角形粘土帶土器를 瓦質土器에 앞서는 토기로 보는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서북 이남과 전남 동부지방에서는 3세기경까지도 硬質無文土器가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瓦質土器가 나타나고 있는 영남지역의 경우에는 일부 이른 시기의 목관묘에서 斷面 三角形粘土帶土器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瓦質土器, 특히 기원후 2~3세기 신식 瓦質土器와 斷面三角形粘土帶土器가 공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崔盛洛 : 마지막으로 발표했으니까 짧게 했습니다만 토론도 짧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편의적입니다. 제가 시기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가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기원후 3세기부터 구분하시는 분도 있고, 기원후 2세기대로 보는 분도 있고, 과거 가야의 시작을 기원후 1세기로 보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가야를 빨리 보더라도 기원후 1~2세기로 보니까 기원전 1세기 茶戶里 단계는 가야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弁韓 혹은 弁辰韓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불행히도 제가 관찰하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2세기라는 견해도 일반적인 견해를 수용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아까 발표에서 다 나왔습니다만, 낙동강유역의 토광묘문화권에서 본다면 斷面三角形 구연이 瓦質土器보다 빠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낙동강유역의 瓦質土器문화권에서 벗어나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호남지역이라든지 특히 제가 학위논문을 쓸 때도 패총문화권과 토광묘문화권을 구분했는데 실상 그 아이디어는 돌아가신 韓炳三 선생님 글에서 얻어서 논문을 썼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는데요, 두 문화가 합해진 곳이 낙동강하구 쪽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申敬澈 선생님과 武末純一 선생님과 이야기 중에 勒島와 金海의 단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金海지역은 패총문화권에 들어갑시다만, 토광묘문화권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봅니다. 낙동강유역의 토광묘문화권이 瓦質土器化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화가 바뀝니다. 그러나 패총문화권에서는 지속되는데 다만 金海패총과 같은 곳은 중간지점이고 교차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토광묘가 있어도 瓦質土器가 잘 안 나온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교역망의 형성이 어떠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왜 형성되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는 파악하기 쉬운데, 왜 형성되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역망이 형성되는 배경에는 철의 수요라든지 고대국가의 성장과정이라든지 또 日本 古代國家가 성장하면서 한반도를 통해 문화, 즉 철기 문화를 중국으로부터 바로 수용하였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해상 루트가 더 발달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申敬澈 : 토광묘문화권과 패총문화권이 다른 양상이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崔盛洛 : 제가 토광묘문화권이라고 했지만 낙동강의 토광묘문화권입니다. 낙동강유역의 토광묘는 瓦質土器를 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여줬던 호남지역의 주구토광묘에서는 瓦質土器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패총과 주구토광묘문화권에서는 瓦質土器가 안 보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李榮勳 : 崔盛洛 선생께서 여러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방청석에 李南珪 선생이 계신데 철기 문제에 대해 코멘트하실 것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李南珪 : 한신대학교의 李南珪입니다. 철기 문제에 앞서 영남지방의 茶戶里 시기 문화와 樂浪 간의 관계성이 재론되지만, 앞서 인식해야할 문제가 당시 국제 정세 전반에 대한 냉정한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당시 秦漢 대제

국의 성립과 주변 지역 제 종족들의 재편성 속에서 한반도가 어떻게 요동쳤는가 하는 시각을 갖고 그 중에서 영남지방이 어떻게 움직이고 생존해왔는지 거대담론적인 시각부터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반도 전체를 보면 청동기시대 粘土帶土器까지의 한반도문화가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다 박멸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죠. 樂浪 설치된 다음에는 고구려는 고구려대로, 한반도 중부지역은 硬質無文土器의 문화단계고요. 馬韓지역의 서남부지역은 다르고요. 낙동강유역권만이 목관묘와 중국 樂浪의 수용을 입으면서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국제질서 속에서 樂浪과 한반도 동남부와의 연계망이 중간지역인 한강유역권이 빠지고 일본과 연결되는 이상한 구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중국에 있어서의 관심이 한반도보다는 倭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철기문화를 어떻게 봐야할 것이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영남지방에 있어서 철기문화 개시와 관련된 시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樂浪 설치 이전이나 이후냐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시달려왔는데, 예전에 석사 논문에서 樂浪 이후에 철기문화가 유입됐다고 얘기했다가 최근에는 서남부지방에서 기원전 2세기 단계의 철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영남지방의 문제는 八達洞, 林堂洞, 東萊 萊城유적 등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기원전 2세기에 철기문화가 유입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樂浪 설치 이후를 강력히 주장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다른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樂浪 설치 이전부터 철기문화가 들어왔을 가능성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이 지역의 문화 변동을 야기한 큰 철기문화의 영향, 충격은 역시 樂浪 설치 이후로 봐야 되고 그 이전의 철기문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茶戶里 1호분 유물을 보면 농공구가 우세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철기의 유입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 구조 속에서 전쟁용 철기보다도 사회 생산성을 높이는 격려 도구로써의 철기가 먼저 도입된 것 같은 인상을 받는데, 따비 등의 생산이 증가되다가 점차 목곽묘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철기문화의 양상이 상당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대형 철제 농공구, 예를 들어 보습 같은 게 나오지만 여기서는 정제된 양상의 농공구가 지속되면서 철제 무기가 발전하고 새로운 목곽묘 문화가 전개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만, 아무튼

거대담론적 시각 속에 각종 물질문화의 유입, 변동들을 살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李榮勳 :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만, 어제 기조 강연에 참석하지 못하신 李健茂 文化財廳長님께서 오늘 오셨습니다. 이청장님, 발굴조사 20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 심포지엄을 보시면서 당시 발굴조사 책임자로서의 所懷 또는 지도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健茂 : 어제 강연에 나왔어야 하는데 제가 국회일 때문에 나오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사한지 벌써 20년이 흘렀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茶戶里유적 현장 사진을 보니까 제가 마흔두 살 때 발굴에 참여했는데 그 때의 흥분이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다시 되살아날 정도입니다. 전시를 둘러봤는데 ‘아.. 이것은 아무 개가 몇 호묘 현장에 들어가서 발굴한 것이구나’ 하고 다 생각이 나더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당시에 茶戶里유적 조사를 하고 진전보고를 내면서 종합보고서를 못 냈던 것입니다. 다 제 잘못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발굴을 함께 참여했던 분들 중에는 박물관 밖으로 나가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해서 더욱 죄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종합보고서를 내지 못하는 바람에 茶戶里 유적이 조사된 지 20년이 흘렀는데도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한 좋은 논문이 나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들은 무척 아쉽습니다. 또 아까 사회자께서 중국에서 오신 선생님께 여쭙본 것 중에 중국 남부지역의 四川省이라든지, 獨木棺 관계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글에서도 관련성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고 확실한 자료를 찾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통나무 목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통나무 목관이 청동기시대에서부터 계속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통나무 목관이 외부지역과 관련성이 있다면 북방의 파지리크(Pazirik) 목관 같은 것과 중국 戰國時代 남부지역의 통나무 목관 밖에 없는데, 파지리크는 너무 거리가 있고 또 목곽 속에 들어있는 목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남부지역과 연결시키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角形銅器도 그 쪽 지역에서 나온 예가 있고, 銅鉞의 분포를 봤을 때도 중국 남부에서 상당수가 출토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문화의 내용을 좀 더 폭넓게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茶戶里유적 발굴에 계속해서 참석해주셨던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하며 저의 짐을 후배들께 떠맡긴 것이 되었는데 좋은 보고서가 출간되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요즘의 추세를 보면 선학들의 연구 성과를 도외시하려는 경향이 짙은 것 같은데, 저는 앞서 선행된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 학문이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학들의 연구가 잘못된 점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참고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李榮勳 :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심포지엄을 개최한 목적은 앞서 이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茶戶里 종합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참고해야 할 많은 부분들에 대해 토론할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이틀 동안의 발표와 토론에서 그러한 실태래들이 잘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茶戶里 1호묘는 도굴된 뒤 발굴했었는데 과연 1호묘 목관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칠기로 만든 목제함도 있었는데, 어제 辛勇旻 원장이 印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혹시 印綬 같은 것이 들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발굴 20주년이 되었습니다만, 도굴도 20주년(?)이 되었거든요. 도굴에도 공소시효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도굴범이 이제는 20년이나 지났으니 그때 자신이 무엇을 도굴했는지 도굴기록 같은 것을 우리 학자들에게 건네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보존처리가 진행 중이라 이번에 전시되지는 않았지만 1호묘에 실태래 같은 노끈 문치가 있었는데 과연 그 노끈 문치를 왜 넣었을까, 그 길이는 얼마나 될까. 상상입니다만, 정말 그것이 하늘까지 이어지는 끈이었을까 등의 여러 생각이 많기도 하고 풀지 못한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1988년초 왜 전면적인 발굴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와 관련하여 무척 아쉬웠던 게 하나 있습니다. 1호묘 목관 밑에도 유물을 부장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1호묘 인근에서 무덤들이 또 도굴되었는데 1호묘처럼 목관이

상당 부분 남아 있던 무덤(15호묘)의 경우 목관 밑까지 철저히 파헤쳐 버린 겁니다.

저도 발굴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없는 책임감을 느끼며 좋은 종합보고서를 발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0년 뒤 발굴 30주년 심포지엄 때에도 만나서 보다 더 진전된 토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고 끝까지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武末純一 선생님, 吉林大學의 王培新 선생님, 井上主稅 선생님 외국에서 오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남아주신 이진무 문화재청장님을 비롯한 청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포지엄 준비하랴 특별전 준비하랴 고생한 중앙박물관 고고부 동지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심포지엄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 송의정, 윤태영, 이진민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
교열 윤태영, 이진민, 홍기승, 이현주 (국립중앙박물관 고고부)

考古學誌 特輯號

2009년 3월 30일 초판 발행

발행 |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5
(우)140-026
Tel. 02-2077-9467
www.museum.go.kr

북디자인, 제작, 인쇄 | (주) 계문사 (02-725-5216)

ISSN 1229-6643

비매품